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2008년 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2008년 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

1주차

| 01.01-01.06 |

1. 대내정세 — 2
가. 정치 관련
나. 경제 관련
다.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3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4
가. 대남 보도
나. 남북 교류

2주차

| 01.07-01.13 |

1. 대내정세 — 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2. 대외정세 — 10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일 관계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1
가. 대남 보도
나. 남북 교류

3주차

| 01.14-01.20 |

1. 대내정세 — 16
가. 경제 관련
나.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8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일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20
가. 대남 보도
나. 남북 교류

4주차

| 01.21-01.27 |

1. 대내정세 — 24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29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일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35

5주차

| 01.28.02.02 |

1. 대내정세 — 3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48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일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53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북한동향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2

1주차

| 02.03-02.10 |

2주차

| 02.11-02.17 |

3주차

| 02.18-02.24 |

4주차

| 02.25-03.02 |

1. 대내정세 — 58
가. 정치 관련
나. 경제 관련
다. 군사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64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러 관계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66
가. 대남 보도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 70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72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74
가. 대남 보도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 80
가. 경제 관련
나.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81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일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83

1. 대내정세 — 8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95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98
가. 대남 보도
나. 남북 교류

제2권 제1호 · 2008
월간 **북한동향**

인 쇄 2008년 2월
발 행 2008년 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편집간사 권혜진 연구원

등 록 제2-02361호(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대외인쇄 두일디자인 2285-0936

<비매품>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Review

1.1-1.6

1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나. 경제 관련
 - 다.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중앙·지방 기관들 “공동시설 철거 관철” 다짐 행사 전개(1/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공동시설이 발표된 직후인 1일 오후부터 2일까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을 중앙·지방기관들이 신년공동시설을 일제히 해당 분야의 “강령적 지침”으로 받아들여 이에 대한 “철저한 관철”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하기 시작
- 내각과 군부, 지방당 등의 고위 간부들도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강조한 신년 공동시설의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보도

나. 경제 관련

■ 경공업 공장의 현대화 강조(2007년 4호, 경제연구)

- “지금 있는 경공업 공장들의 낡고 뒤떨어진 설비와 생산공정을 선진기술로 개조하는 사업을 힘 있게 벌여 기술장비 수준을 높이고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와 현대화, 컴퓨터(컴퓨터)화, 로봇(로봇)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 경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려면 경공업 공장의 현대화를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

다. 사회·문화 관련

■ 새해 첫날 ‘명절 분위기’ 제고(1/1, 조선중앙통신)

- 음력설과 함께 공휴일로 정해져있는 1월 1일, 평양 시내 곳곳에서는 ‘새해를 축하 합니다’, ‘새해 2008’ 등을 적은 선전화(포스터)와 그림판이 세워졌으며 북한 인공기와 붉은색 깃발도 나부껴 명절 분위기가 북돋우어 진 것으로 보도
- 반면, 당·정·군 간부들은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 고(故) 김일성의 시신에 “경의를 표시” 했으며 인민군 장병과 각계 근로자, 청소년들도 현화로 새해 첫 일과를 시작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핵신고 이미 했다”고 주장(1/4, 외무성 대변인 담화)

-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발표(1/4), “우리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핵 신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언급함으로써 핵신고 의무 이행 완료를 주장
- 외무성 대변인은 신고의 핵심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에 대해 “우리는 그들의 요청대로 수입 알루미늄관이 이용된 일부 군사시설까지 특별적으로 참관시키고 우라늄 농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성의 있게 다 해명해 주었다”고 강조

■ 6자회담 합의 이행 재확인(1/2, 조선신보)

- 조선신보의 신년 공동사설 해설 기사에서 “조선에 있어서 2008년은 작년 이룩된 진전에 토대하여 오랜 세월 나라와 인민에 고통과 수난을 강요하던 쇠사슬을 마스고(부수고) 강성부흥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기점의 해”라고 하면서 “6자회담 이행에 관한 조선의 행동에 의문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

나. 북·미 관계

■ 대미 비난 강화(1/6,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미국이 강권으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고 지배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으로 “미국의 강권정책은 건전한 국제관계 수립과 세계평화, 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미국의 강권과 힘의 정책 강행으로 국제적으로 새로운 군비경쟁과 냉전의 위협이 증대되고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엄중히 위협, 침해당했다”고 강조

■ 북·미 평화협정 체결 강조(1/6, 평양방송)

-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면 침략과 전쟁책

등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해야”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 시 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며 남조선(남한)에서 침략적인 무력증강 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 **美당국의 대북라디오 방송 지원에 대한 비난 강화(1/2, 노동신문)**

- “부르주아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퍼뜨려 내부를 와해 변질시키려는 미국의 비열한 심리모략 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 지원에 대한 비난을 강화
- 특히 “미국의 모략적인 대조선(대북) 방송 작전은 오늘 극도의 비열성과 악랄성을 띠고 감행되고 있다”며 미 당국의 대북방송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우리 나라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악랄한 책동의 일환”이라고 주장

다. 북·일 관계

■ **일본의 아프리카 원조와 협력에 대한 비난(1/6, 노동신문)**

-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
- “일본의 의도는 대아프리카 외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올해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진행되는 8개국 수뇌자회의(G8 정상회의)에서 보다 많은 발언권을 획득하자는데” 있는 것으로 주장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한·일 우호관계 강조에 대한 강력대응 시사(1/5, 노동신문)**

- 일본이 남한의 신정부와의 협력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6자 회담에서도 한·일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직

접적인 “대북 압력”이며 “이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

나. 남북 교류

■ 남북한 백두산 연구 가치 부각(조선신보, 1/1)

-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희승(55) 소장은 “백두산에 대한 역사연구는 10·4선언(2007남북정상선언) 6조에 명기된 백두산 관광사업을 염두에 두고 상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새해 백두산역사연구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내외의 주목을 모을 백두산 관광사업에 역사학자들이 실천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 대북 경공업 원자재 차관 2007년분 상환 완료(1/4, 연합뉴스)

- 남측이 북에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한 2007년도분 상환 물량이 1월 4일자로 모두 반입된 것으로 밝혀짐.
- “2007년도 경공업 원자재 대북 현물차관 제공(8천만달러 상당)에 대한 첫 해 상환분 3%중 1.5% 상환분인 북한산 아연괴 500톤(120만달러 상당)이 1월 3일 저녁 인천항에 도착, 4일 오전 하역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짐.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Review

1.7-1.13

1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일 관계
-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경제현장과 군부대 시찰로 새해를 시작(1/6, 1/7, 조선중앙통신)
 -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현지 지도 장소는 황해북도 예성강발전소 건설 공사장과 인민군 제776부대였음.
 - 이번 시찰에는 노동당 이용철 제1부부장과 현철해, 이명수 대장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미국의 북한 붕괴론에 대한 김정일의 판단 소개(1/11, 노동신문)
 - 미국의 북한 붕괴론 관련, 김 위원장은 “미국은 아직도 상대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있으며 “우리가 저들의 군사적 압력과 공갈, 경제 봉쇄로 얼마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만 보아도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얼마나 오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소개

다. 경제 관련

- 러시아 민속악기 바얀(bayan) 수출(1/10, 조선신보)
 - 평양악기공장에서 러시아 민속악기 바얀(bayan)을 제조, 본고장 러시아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 “이런 나라에 수출되는 제품에는 조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형태의 바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선전
- ‘농업증산’ 총결기 대회 개최(1/9,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1/7, 조선중앙 TV)
 - 김중린 노동당 중앙위 비서를 비롯한 관계 간부와 평양시내 농업근로자들은 평양 만수대언덕의 김일성 동상 앞에서 쫄기모임 개최(1/7)
 - 농민조직인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강창욱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해남도 재령군 상지강협동농장에서 협동농장으로서 최초로 쫄기모임이

개최(1/8)

- “농업과학원에서는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할 데 대한 공동시설의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과학작상 발표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토론회, 발표회들을 조직하고 다수확 품종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협동별로 나가 선진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농장원들 속에 알려주는 사업을 동시에 벌여 나가고” 있다고 보도(1/9)
-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 줄 데 대한 새해 공동시설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농촌을 힘 있게 지원하고 있다”며,
- 황해남도내 도급 기관, 기업소 일꾼과 해주시 근로자들이 해주시 영양협동농장 등에 수천 톤의 거름을 보내고 함경남도 당원과 근로자들이 수백대 분량의 거름을 함주군 상중협동농장 등에 지원했다고 보도

■ 양보다 질을 강조하는 21세기 자력갱생(1/9, 조선신보)

- “오늘의 자력갱생은 양보다 질이며, 현대 과학기술과 실리”라고 강조
- “6자회담 합의의 이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북아 정세의 전환적 국면은 조선의 경제부흥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은 “새로운 의미의 자력갱생의 원칙 구현”이라는 기치 하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설명

■ 2008년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일정 확정(1/9, 연합)

- 조선국제전람사는 올해 5월 12~15일, 9월 22~25일 두 차례 평양상품전람회 개최 일정을 확정

■ 김책공대, 수면부상 보트 개발 및 대외 판매 선전(1/9, 연합)

- 김책공업대학이 최근 강과 호수에서 택시나 유람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중날개배’를 개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와 합작을 제의 중
- ‘수중날개배’는 길이 5.25m, 너비 1.85m, 기관출력 40마력에 최대 5명을 태우고 수면 위 18cm에서 30~40노트의 속도로 “수면 우(위)로 떠가는 작은 배”로 설명

■ 김책공대, 정보처리 기술교육 강화(1/7, 조선신보)

-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정보기술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고 화상, 음성처리를 비롯한 정보처리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미국 1군단사령부 일본 이전에 대한 비난 지속(1/8, 노동신문)

- “미국이 조선전쟁(한국전) 때 일본을 미군의 병참, 보급, 작전기지로 이용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가나가와 현에 대한 미국의 전방사령부 개설과 핵심작전기지로의 승격 조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며 “그것은 새로운 조선 전쟁 도발을 위한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난

나. 북·중 관계

■ 북한 외무성, 중국 대사관과 새해 친선모임 개최(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이 새해를 맞아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 친선 모임을 개최
- 여기에 북측 박의춘 외무상과 외무성 직원들이, 중국 측 류샤오밍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참석
- 모임에서 “새해에도 조(북)·중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했다”고 강조

다. 북·일 관계

■ 일본 MD 관련 지침 개정에 대한 비난 되풀이(1/9, 노동신문)

- 일본이 최근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것은 “매우 위험한 군사적 조치”이며, 첫번째 공격 목표는 북한이라고 비난

■ 조총련 오사카본부 건물 매매(1/9, 요미우리신문)

- 조총련 오사카 본부가 있는 '오사카 조선회관' 이 경매를 통해 약 6억엔(약 51억6000만원)에 매매

라. 기타 외교 관계

■ 호주 북한대사관 1월말 철수(1/11, 연합뉴스)

- 호주 주재 북한대사관의 박명국 공사는 “재정적인 이유로 부득이 철수하게 됐다”고 언급, “2002년 5월 8일 양국의 쌍무외교협정 체결”을 하였으나 “하워드 정부는 2003년부터 핵 문제 등을 이유로 관계 발전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 외교활동을 제약했다”고 주장
- 향후 “호주가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하는 등 달라지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도 다시 캔버라에 대사관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한 비난 강화(1/12, 통일신보)

- 한국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안이 통과된 것을 “추악한 사대매국 행위, 반민족적 범죄 행위”로 비난

■ '자유신당' 창당에 대한 비난 가세(1/12, 평양방송)

-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권력욕' 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 민족은 결코 방관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이 전총재를 “역도”로 표현하면서 “이회창이 당한 참패는 집권욕 실현을 위해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반통일분자에게 내린 역사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주장

■ 조평통, 한총련의장 검거에 대한 비난(1/11, 조평통 보도)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서기국 보도를 통해 한총련 의장인 전남대 총학생 회장 유선민씨의 검거에 대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북남관계를 뒤집어 얹으려는 반역행위”라고 비난

나. 남북 교류

■ 해남군민 ‘통일쌀’ 북한 전달 예정(1/11, 연합)

- 전남 해남 군민들은 통일쌀 1천 200여 가마를 북한에 전달할 예정

■ 남북합작 ‘평양 치킨점’ 오토바이 배달(1/11, 연합)

- 남북이 함께 설립·운영하는 평양의 ‘치킨 프랜차이즈’ 1호점이 2월 10일을 전후해 개점한다고 남측 합작사인 ‘맛대로촌닭’의 최원호 대표가 11일 발표, 최 대표는 “최근 북측 합작사인 락원무역총회사로부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6회 생일(2.16) 전 1호점을 개점하자는 연락과 함께 내부 인테리어 사진도 받았다”고 밝힘.
- 평양 개선문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이 상점의 명칭은 ‘락원닭요리전문식당’으로 닭요리와 함께 생맥주 등을 주문받아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 부지와 20여명의 종업원, 닭, 대동강생맥주는 북측에서 공급하고 초기 투자금과 전문요리사, 기자재, 양념소스 등은 최 대표가 맡음. 개점 후 수익은 최 대표와 락원 측이 7대 3의 비율로 나누기로 함.

■ 샘복지재단, 북한 선수촌 병원 현대화 지원 계획(1/9, 연합)

- 국제구호단체인 샘복지재단은 북한의 체육선수촌에 있는 ‘안골 체육인 병원’에 10억원 규모의 의료기구와 장비 기증

■ 평양에 거창 사과나무 심기로 약속(1/9, 연합)

- 경남 거창군은 경남통일농업협력회(회장 전강석)와 함께 벌이는 대북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평양시내 한 협동농장에 1ha 규모에 거창 사과나무를 심어 키낮은 과원을 조성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짐.

- 2월 실무 담당자가 평양에서 기초조사를 벌인 뒤, 나무심기에 알맞은 2008년 4월 초순께 강은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일행이 평양에서 식수 예정

■ 제주도,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 조성 예정(1/8, 연합뉴스)

- 제주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기금 100억원을 조성할 예정

■ 올해 남북 체육교류 적극화(1/8, 조선신보)

- “작년 10·4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북남이 체육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고 하면서 “우리는 10·4선언의 정신에 맞게 북남 체육교류를 적극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

■ 北, 새해 첫 남북공동행사에 부정적(1/7, 연합뉴스)

-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위원회가 “남측이 새해맞이 행사를 단독 주최하라. 북측에서는 몇 명이 나가서 연설하고 참관하겠다”며 공동행사에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
- 이에 따라 1월 12~15일 평양이나 개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 실무 접촉도 취소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Review

1.14-1.20

1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경제 관련
- 나.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일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경제 관련

■ 식량문제 우선해결 강조(1/18, 조선중앙방송)

- “올해 무엇보다 먹는 문제, 식량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주택 공급 강화 부각 (1/18, 조선신보)

- 평양시 건설지도국 김형길(61) 부국장은 2012년까지 평양의 10만 가구 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고, 상하수도과 체신망 등 정비, 옥류관, 중앙동물원, 류경호텔, 대동강 강안(2단계: 대극장-충성의 다리구간), 양각도 유원지 등 70여 곳에 대한 개선사업이 진행된다고 밝힘.

■ 경제과제 달성 관련 군중대회 개최(1/1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신년 공동시설 발표 이후 공동시설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주민 10만여 명 군중대회 개최에 이어 도별 군중대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으며 군중대회는 도, 시, 군을 거쳐 산업시설과 기관 등으로 확산

■ ‘자강도’ 부각 보고 대회 개최(1/16,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5일 자강도 강계시에서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최기룡 자강도 인민위원장 등 간부들과 도내 근로단체, 공장·기업소 일꾼, 근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보고회 개최

※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8년 1월 16~21일 김정일이 자강도 강계시를 시찰, 중소형발전소 등을 자체 건설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강계정신’으로 규정, 주민동원 구호로 제시

나. 사회·문화 관련

■ 토끼고기를 ‘제2의 단고기’로 부각(1/20, 조선신보)

-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이 닥치면서 노동당의 방침에 따라 “풀과 고기를 맞바꾸자”며 풀을 먹여 고기를 얻을 수 있는 토끼 기르기를 적극

권장해왔으며,

- 공장, 기업소, 학교, 군부대는 물론 가정들에서도 토끼를 기르고 있으며 현재 평양 식당가마다 토끼고기 요리를 간판 메뉴로 내놓고 ‘제2의 단고기(개고기)’로 부각 선전

■ 2004년 인구 2천361만2천명(2007년판, 조선중앙연감)

- 북한 총인구는 2004년 현재 2천361만2천명으로 집계
 - ※ 이전 집계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1996년 2천211만4천명, 1997년 2천235만5천명, 1998년 2천255만4천명, 1999년 2천275만4천명, 2000년 2천296만3천명, 2001년 2천314만9천명, 2002년 2천331만3천명임.

■ 4천여점 식물표본 채집(1/4, 민주조선)

- 중앙식물원연구소는 2007년 북한 각지의 식물자원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
- 4천여점의 식물 표본을 채집

■ 제2차 전국소묘축전 개최(1/17,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6회 생일(2.16)을 맞아 ‘2·16경축 제2차 전국소묘축전’이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최되며,
- 이번 축전은 화가, 미술애호가, 대학생,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될 예정

■ 최초 어린이전문병원 8월 개업(1/17, 조선신보)

- 조선적십자병원, 김만유병원 등과 함께 북한의 3대 종합병원으로 꼽히는 평양의학대학병원이 2008년 8월 어린이 전문병원인 독립된 소아병동을 개업할 예정

■ 개성서 고려시대 돌다리 발굴(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개성시 덕암동에서 고려시대 돌다리인 ‘취적교’의 주춧돌로 추정되는 유적 발굴

2) 대외정세

■ 적극적 대외활동 강조(1/18, 노동신문)

- 2007년 북한의 대외관계 확대를 “선군조선의 대외적 권위가 전례 없이 높아진 것으로 자랑하고 앞으로도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강화할 입장을 밝힘.

가. 북·미 관계

■ 대미비난 강화(11/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 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무력 증강에 광분”하면서,
- “대조선(북한) 압살기도”에 매진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

■ 평양 소주 미국 상륙 예정(1/17, 뉴욕한국일보)

- 북한산 평양소주가 빠르면 2월, 뉴욕 등 美동부에서 시판될 것으로 알려짐.

나. 북·중 관계

■ 김용삼 철도상, 중국 방문(1/19, 조선중앙통신)

- 중국을 방문하는 김용삼 철도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철도성대표단이 19일 평양을 출발

■ 박의춘 외무상, 첫 공식 방중 예정(1/14, 북한주재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2007년 5월 임명된 후,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할 것으로 알려짐.

다. 북·일 관계

■ 日, '테러대책법' 재의결에 대한 비난(1/15, 조선중앙방송)

- 일본이 '신(新)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 을 재의결해 인도양에서 해상자위대가 다국적군 함정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범죄적 행위"라고 비난

라. 북·러 관계

■ 북한 노동당, 러 대사관과 신년 친선모임(1/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8일 주북 러시아 대사관과 신년 친선모임을 갖고 양국간 협력을 다짐했다고 보도
- 이날 모임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 지재룡, 박경선 당 국제부 부부장 등 북측 관계자들과 발레리 수히닌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참석

마. 기타 외교 관계

■ 김정일 위원장, 베트남 방문 합의(1/18, 아사이신문)

- 베트남의 팜 자 키엠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베트남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식으로 초청, 김 위원장이 방문하기로 북한측과 합의가 이뤄졌음을 밝혔다고 보도됨
- 키엠 베트남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

■ 북한, 이란과 잠수함으로 외채 상환 협의(1/18, 산케이 신문)

- 북한은 이란에 진 수억 달러의 외채를 소형 잠수함으로 대신 상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
- 이란은 이미 배치한 잠수함의 성능 개선도 요구하는 것으로 소개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10·4선언 철저히 이행하면 획기적 국면” 강조(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10·4선언이 철저히 이행 되면 조국통일의 앞길에 획기적인 국면이 열리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면서
 -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
- 한·미·일 3각협력체제 구축 관련 비난강화(1/5, 1/16, 노동신문)
 - 한·미·일 3각협력체제의 구축 또는 복원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3각 협력 체제를 “대조선 압력공조체제”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힘.
 - 북한은 한·미·일의 대북 3각 “압력공조”에 “강력 대응”을 경고하는 기사를 잇따라 싣고 있음.

나. 남북 교류

- 원광대, 北에 담요 1천400장 전달(1/16, 연합)
 - 원광대(총장 나용호)가 북한어린이를 돕기 위해 담요 1천400여 장을 북측에 전달
- 인디에프, 개성 공장 기공식(1/14, 연합)
 - 인디에프(옛 나산)는 14일 개성공단에서 1차 개성공단 의류공장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힘.
- 개성공단 인터넷 서비스 연내 개통(1/14, 연합)
 - 2008년 안으로 개성공단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개통될 것으로 보이며,
 - 금강산과 해주, 남포 등 신규 경협지역에 대한 통신망 구축을 확대
 - 북한의 IT(정보기술) 능력 배양을 위해 개성에 ‘IT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

■ 정부, KOTRA 평양무역관 설치 추진(1/14, 연합)

- 통일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평양에 KOTRA 무역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Review

1.21-1.27

1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일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자강도 장강군 경제시설 시찰(1/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장강군내 버섯공장과 식료공장, 토끼종축장 등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김위원장은 장강버섯공장에 들러 “버섯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균보장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이라며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과업을 제시했고, 장강식료공장에서는 “나라의 경공업 발전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
- 이어 자강도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전시회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위대한 역사를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인민의 힘을 그 어떤 무기로서도 정복하지 못한다”면서 “자강도 근로자들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선구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
- 이번 시찰에는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와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수행

■ 김정일, 닭·돼지공장 시찰(1/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의 강계닭공장과 강계돼지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김 위원장은 강계닭공장에서 여러 생산 공정과 생산관리 운영실태를 둘러보고 “새로운 생산공정들을 확립해 인민생활에 복무하는 공장으로 전변시킨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며 공장의 노동자와 기술자들을 격려
-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노동당 자강도위원회 박도춘 책임비서와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수행

나. 정치 관련

■ 北, 핵신고 이후 단계 비핵화도 실현시킬 것(1/2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앞으로 2단계 조치(불능

화·핵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도 조선(북한)은 철저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

- 또 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인 10·3합의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참가국의 의무사항인 조선에 대한 중유와 에너지 관련 설비 및 자재 납입은 절반도 실현되지 않고 있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무역법 적용 종식이라는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 핵 신고문제에 대해 “이미 작년 11월에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미국에 통보했으며 신고서 내용을 좀더 협의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협의를 충분히 진행했다”는 1월 4일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 내용을 상기시킴.

■ 北, 강력한 억제력 있어야 참다운 인권 담보(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미국의 인권공세를 대북압살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억제력이 없이는 나라의 자주권도, 참다운 인권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미국은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의 그 무슨 인권문제를 고안해 이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압력, 침략과 정부전복 책동을 합리화하는데 써먹고 있다”며 “미국이 제멋대로 내정간섭적인 비법, 불법의 ‘북조선 인권법’을 조작해 실행하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례”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주요노선 철도의 강도강화에 역점(1/23, 조선중앙방송)

- 북한 철도 당국이 올해 주요 철도 노선의 강도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힘. 북한 철도성의 정창경 국장은 조선중앙방송 ‘연단’에 출연해 “철도 수송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겠다”면서 “철길의 레루(레일), 침목, 자갈을 제때 교체해 철길의 강도를 높이고 철다리(철교)와 같은 구조물을 보수, 보강”해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
- 정 국장은 특히 “지난해 이룩한 성과에 토대해 주요 철길 강도를 높이려 한다”면서 “침목 생산기지를 현대화해 콘크리트 침목과 나무침목 생산을 지난해에 비해 훨씬 늘이고 철길자갈 생산설비의 정비 보강에 더욱 힘을 넣어...침목과 철길자갈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겠다”고 언급

■ 北순환농법, 사리원돼지공장 실현(1/23, 조선신보)

- 황해북도 사리원 돼지공장이 경작과 축산을 결합한 과학적인 순환농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2007년 10월 준공된 이 돼지공장이 “사료 가공부터 먹이 및 물 공급, 돼지우리의 온습도 조절 등 모든 공정이 자동화돼 있다”며 이 공장을 “현대적 축산 실천장”이라고 언급, 신문에 따르면 사리원 돼지공장은 사료 공급을 위해 황해북도의 한 군(郡)을 지정, 옥수수과 콩 등 연간 수천톤의 사료용 곡물을 “전문적으로 보장(공급)해주는 정연한 체계”를 마련했다고 언급
- 황해북도에서는 사료용 곡물의 증산을 위해 돼지공장과 함께 인근에 유기질 비료공장을 건설하고 돈사에서 나오는 돼지 배설물이 관을 따라 비료공장으로 넘어가도록 설계해 사료농장으로 보낼 복합미생물비료를 만들고 있음.
- 신문은 이 돼지공장이 “황해북도 자체의 힘”으로 건설됐다면서 “여기서 도내 인민들을 위해 연간 수천톤의 고기가 생산된다”고 강조

■ 北, 남북축구 평양매치 관광객 유치(1/23, 연합)

- 북한이 3월 26일 평양에서 열리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남북한 매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섬. 23일 스웨덴 소재 북한 관광 전문업체인 ‘코리아콘선티(Korea Konsult)’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남북 간 ‘역사적인 축구경기’가 3월 26일 오후 3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개최된다고 이 경기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여행”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힘.
- 여행사에 따르면 이번 북한 여행은 4박 5일 일정으로 3월 25일 비행기편으로 베이징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 3월 29일 기차 또는 비행기편으로 베이징으로 돌아오며 여행 비용은 1천190유로(약 163만원)로, 비자발급이나 티켓(20유로), 1인실 추가(30유로) 등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한다고 소개, 여행 신청은 2월 25일까지 가능

라. 군사 관련

■ 北, 경기북부 육군 기동훈련 비난(1/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육군 기갑부대가 경기 북부 한탄강에서 벌이고 있는

야외 기동훈련을 한반도에 “전쟁의 칼바람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비난, 중앙통신은 ‘남조선군이 대규모 군사연습 감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육군 기갑부대가 1월 23일부터 6일동안 실시하는 이번 훈련이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북과 남, 해외의 온겨레가 반전 평화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때에 남조선 군부세력은 전쟁의 칼바람을 일으키며 저들의 호전적 정체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주장

마. 사회 · 문화 관련

■ 평양시내 구호관 ‘주공전선 경제전선’으로 교체(1/27, 연합뉴스)

- 북한이 26일을 기해 평양시내에 신년 공동사설에서 언급된 ‘주공(主功)전선 경제전선’이라는 구호를 일제 등장시킨 사실이 평양을 다녀온 복수의 남측인사를 통해 확인
- ‘주공전선 경제전선’은 북한의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 등장하는 말로 북한은 올해를 2012년 강성대국의 문호를 열기 위한 경제발전의 첫해로 규정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선언한 바 있음. 북한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연이어 공동사설에서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을 농업전선으로 규정한 적은 있었지만 경제전선을 주공전선으로 제시한 것은 올해가 처음임.
- 북한은 평양시내 구호관 교체에 앞서 올해 초부터 주민을 상대로 진행된 공동사설 학습에서 경제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특히 일부 무역기관 및 회사들은 경제건설을 위해 남측과 경협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짐.

■ 北, 외국외교관 전용 종합물놀이장 신축(1/25, 조선신보)

- 북한이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관들을 위해 대동강 외교단회관에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짓고 있다고 보도, 조선신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교단 성원들의 문화생활 조건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해 물놀이 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제시했다”고 보도
- 연면적 4천750㎡인 종합 물놀이장은 지상 2층과 지하층으로 건설되며, “1

층은 수영홀이며 2층엔 안정실(일광욕실)과 치료체육실, 식당 등이 갖춰진다”고 신문은 설명함. 이 물놀이장은 1, 2층이 관통홀로 돼 “실내에서도 이 용자들이 햇빛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됐으며 연말 완공 예정이라고 언급

■ 北의료진, 상이군인에 피부이식(1/24, 평양방송)

- 조선적십자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과 함께 북한의 ‘3대병원’으로 꼽히는 평양 김만유병원의 의료진이 상이군인의 피부 이식수술을 하면서 자신의 피부를 제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소개

■ 北, 뉴욕필 공연할 동평양대극장 개조공사 중(1/23, 연합뉴스)

- 북한이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요청으로 2월 26일 공연이 진행될 예정인 동평양대극장 일부에 대해 개조공사를 진행, 북한 문화성은 2월 5일과 15일 평양을 방문한 뉴욕필 준비팀의 요청에 따라 동평양대극장에 새로 음향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무대구조 일부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

■ 北, 대학주관 ‘현지학습반’ 220여개 운영(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각 대학들이 농장을 비롯한 생산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학습반’ 220여개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 현지학습반이란 여건상 정규 대학에 다니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대학들이 생산현장에서 해당 분야의 강의를 개설하는 북한 특유의 교육제도

■ 北, 신채호, 민족주의 사학에 진보적 역할(2007년 12월호, 역사과학)

- 북한의 학술계간지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申采浩) 선생의 논설 ‘독사신론(讀史新論)’에 대해 민족주의적 사학 형성에 “진보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
- 북한의 ‘역사과학’ 최근호(2007년 12월호)는 신채호 선생이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독사신론’을 소개하는 글을 실고 “독사신론에 반영된 신채호의 역사관이 우리나라 민족주의 사학 형성과 편사 사학에 미친 진보적 역할은 근대시기 역사학이 종전의 유교적 명분론에 기초한 중세 편사

사학의 틀에서 벗어나 근대적 학문으로의 첫 걸음을 떼게 하는 데 적지않게 기여했다”고 주장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北, 평화협정 체결, 지금이 적기(1/26,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노동신문 미국에 거듭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조(북)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
- 노동신문은 북한이 지금까지 “3백 수십차에 걸쳐” 각종 평화적 방안을 내놓았으나 미국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한반도에서 무장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잠정협정을 체결할 데 대한” 제안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

■ 北, 美 강권정책에 초강경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1/2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미국의 강권(強權)정책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초강경으로 맞설 것”을 촉구, 중앙방송은 이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지배주의 수법’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미국의 강권정책은 도수를 넘어 유엔과 국제법을 안중에 두지 않고 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과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타파하지 않고는 “자주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고 주장
- 미국의 “무분별한 강권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라크 전쟁을 들었으며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경제무역 분야에서도 감행되고 있다”며 슈퍼 301조항과 스페셜 301조항 등을 꼽음.

■ 미국무부, 北김명길 샌디에이고 방문 허가(1/25,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각)부터 27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CSD)에서 열리는 '제1회 남북한 영화제'에 참석할 예정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김명길 차석대사와 백정호 참사에 대해 여행허가를 내줬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 미국과 외교 관계가 없는 북한 대표부 외교관은 뉴욕 중심 지역에서 반경 25마일이 넘는 지역을 여행하려면 국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北, 美 부당한 내정간섭 그만둬야(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미국은 세계의 자주화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부당한 내정간섭 책동을 그만둬야 한다”며 각국에서 미국의 내정간섭 논란 사례를 열거, 신문은 ‘규탄 배격당하는 부당한 내정간섭 책동’이라는 글에서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 책동이 날을 따라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내정간섭 행위는 국제법과 국가관계 규범에 어긋나는 천만번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

■ 北, 부시 대통령 중동 순방 비난(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동지역을 순방하면서 “양면주의적 술책과 이스라엘 일변도 정책을 다시금 드러냈다”며 “미국이야말로 중동 평화의 파괴자, 교살자”라고 비난

■ 北, 美MD, 새 군비경쟁 초래...냉전 회귀(1/23,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반전평화옹호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미제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 방송은 “세계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위체계 수립을 다그치고 있는 것”을 들고 현재 반전평화투쟁에서 “특별히 절박한 과제”는 “미제의 반테러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는 것”이라고 주장

■ 北, 美 비핵화 과정에 장애 조성(1/22,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은 2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며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

- 대변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전쟁위험의 주범은 바로 미국”이라고 강조하며 남한에서 미국의 무력증강 및 군사연습 저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동시에 “미국은 지난 세기 푸에블로호 사건에서 얻은 응당한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당장 걷어치우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데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

■ 노동신문, 美언론보도 인용해 위폐의혹 반박(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최근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혐의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미국정부의 핵연구소 취직 알선 등을 전한 미국의 언론보도들을 인용해, 위폐와 핵확산의 ‘진범’은 미국이라고 주장

나. 북·중 관계

■ 김정일, 3월 말께 방중 추진(1/27,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빠르면 3월 말께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경제재건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외교 소식통들은 27일 “후진타오 주석의 집권 2기를 개막하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막 직후인 3월 말께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초청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 이들은 “후진타오 주석이 4월 중순께 일본을 방문하며 5월부터는 최고지도부 전원이 올림픽 준비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
- ※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1994년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등장한 이후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2004년 4월, 2006년 1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중국을 방문

■ 中투먼-北남양, ‘보행관광’ 합의(1/24, 연변인민방송)

- 중국 투먼(圖們)시에서 북·중 국경을 걸어서 넘어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노동자구를 관광할 수 있게 됐다고 중국의 인터넷방송인 연변인민방송국이 보도

- 이 방송은 “투먼시에서는 조선 남양시와 잇닿아 있는 지리적 우세로 변경 관광 발전을 진일보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선 함경북도관광국과 국경을 걸어넘는 보행(步行)관광 합의를 체결했다”고 보도
- 이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각각 투먼-남양 보행관광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여행사를 지정하며, 북측은 중국 관광객이 24시간 이내에 출입경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방송은 “지난해 투먼시에서는 조선 변경 관광객 4천여명을 접대했다”면서 “이 코스가 개통되면 관광객들은 조선 주민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변경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 北무산철광 대규모 투자 백지화(1/23, 도쿄신문)

- 중국 기업은 동북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북한 무산철광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백지화했다고 도쿄 신문이 보도, 신문은 중국 조선족자치주 무역 관계자 등을 인용해 무산광산의 50년간 개발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이 대북 투자를 보류하고 제한적인 대중수출에 머무르고 있다고 언급, 그 배경에는 북한이 중국 경제에 흡수되는 것에 강한 경계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 中관광객, 신의주 변경관광 3월 재개될 듯(1/23, 연합)

- 지난 2005년 9월 중국 정부의 해외 원정도박 규제에 따른 통행증 발급중단 조치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신의주 1일 변경관광이 빠르면 3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
- 중국 단둥(丹東)국제여행사 관계자는 23일 “정부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변경지역 관광객에 대해서는 여권없이 통행증만으로 이웃국가로 출국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신의주 1일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원정도박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자 2005년 9월 이후 관광용 변경지역 통행증 발급을 중단한 뒤 신의주관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정부로부터 사전 출국허가를 받아 여권을 가지고 출

국하도록 절차를 강화한 바 있으며 통행증 발급중단 조치로 출국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2007년의 경우 신의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수천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음.

- 단둥지역 여행업계는 올해부터 관광용 통행증 발급이 재개되면서 북한이 관광객 숫자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올 한해 최대 5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신의주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북한도 중국인 관광객의 신의주 1일관광 재개에 맞춰 압록강변에 건물을 신축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도시정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다. 북·일 관계

■ 北, 日 독도 정밀지도 제작은 자주권 침해(1/25,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북한 역사학학회는 25일 일본이 최근 위성자료를 이용해 독도에 대해 축척 2만5천분의 1 정밀지도를 제작, 공개한 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라고 규탄했다고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가 보도
- 역사학학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독도가 어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논박할 수없이 확증되고 공인된 사실”이라며 “일본 반동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생역지에 불과하다”고 주장
- 대변인은 아울러 “남조선(남한)의 각계층 인민들은... 민족의 뉘를 쫓아내고 ‘한일공조 강화’를 부르짖고 있는 극우 보수분자들의 매국배족 행위를 단호히 분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깨어나 파렴치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버리고 우리 민족에 저지른 치떨리는 과거 범죄에 대해 올바른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

■ 北, 日의 국제압력 강화론 주시(1/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5일 남한 대선 후 일본 정치권에서 한일협력 관계의 강화를 통해 대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금후 조선(북한)은 일본의 행동을 주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노동신문의 지난 5일자 보도를 인용, “‘영향력 행사’란 6자회담을 궤방하기 위한 ‘국제적 압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소리”가 본질이라고 주

장, 신문은 일본이 지난해 9월 대북 제재조치의 6개월 연장에 이어 “새해 들어서서도 교토 상공회에 대한 강제수색 등 (조)총련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의 양심적인 진보적 인사들과 연대해 총련 탄압 중지, 만경봉92호의 운항재개 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투쟁”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

■ 北, 3각협력체제 추진은 北에 무지한 탓(1/21, 연합)

- 신문은 일본이 최근 “남조선에서의 정치정세 변화를 기회로” 한·미·일 3각 협력체제를 구축하려 하는 것은 “우리(북한)에 대한 일본의 무지와 외교적 무능,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의 표현”이라고 비난

라. 북·러 관계

■ 北·러시아, 라진항 전력공급 본격 논의(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라진항 운영에 필요한 전력 제공 방안과 러시아의 하산과 라진간 철도 연결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하기 위해 러시아의 ‘인테르 라오 예에에스 (INTER RAO UES)’ 회사 대표단이 2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대표단은 방문기간 조·러 두 나라 정부 사이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체결된 의정서에 따르는 전력부문 협조 문제를 우리측과 협의하게 된다”고 보도하고, 특히 “쌍방은 하산-라진 사이의 철도와 라진항 운영에 필요한 전력 납입문제를 중점적으로 토의하게 된다”고 언급

마. 기타 외교 관계

■ 북한, 재정 궁핍으로 호주주재 대사관 폐쇄(1/22, 연합)

- 북한이 호주 주재 북한 대사관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북한 대사관을 폐쇄했다고 호주 외무부가 22일 밝힘.

3 대남정세

■ 개성공단 일반인 단체방문 29일 재개(1/27, 연합)

- 연말을 맞아 12월 17일 부터 중단됐던 일반인들의 개성공단 단체 방문이 1월 29일부터 재개
- 정부 당국자는 27일 “올해 첫 일반인 단체방문 행사로 29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사람들에 대한 초청장을 지난 25일 북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힘. 북측은 통상 개성공단 방문 초청장을 방문 사흘 전에 발급

■ 대북경공업 기술지원팀 귀환(1/26, 연합)

-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방북했던 제4차 경공업공장 기술지원팀이 26일,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송배 총괄기획실장이 이끄는 방북단 7명은 22일부터 북에 체류하며 남측의 원자재 지원을 받은 평양과 그 근교의 섬유, 신발, 비누 공장 4곳을 방문하고 기술을 지원, 이 실장은 “북측이 기술적인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등 상당히 협조적인 분위기였다”면서 “유무상통의 경공업 원자재 사업에 대한 북측의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고 언급

■ 북, 남북 화물열차 운행 횟수 줄이자고 제안(1/26, 연합)

- 25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이 하루 한번씩 오가는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의 운행 횟수를 감축할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짐.
- 26일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측 단장인 박림수 대좌는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짐도 없이 오갈 바에야 차라리 운행을 줄이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달,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철로 안정화나 물류 기반 확충의 차원에서 정기 운행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철도화물 수송과 열차운행 시스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남북 철도협력분과위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언급
- 한편 남북은 북측의 요청으로 한차례 연기됐던 남북 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1월 29~30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가질 예정

■ **관정교육재단, 北에 남북통일말사전 제공키로(1/25, 연합)**

- 장학재단인 관정(冠廷) 이종환 교육재단은 북한에 남북통일말 사전을 무상 제공키로 했다고 25일 밝힘. 재단측은 24일 개성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가진 실무접촉에서 사전을 무상 제공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2월 12일께 다시 만나 수량 및 전달방법 등을 협의키로 했다고 언급
- 재단이 2006년 발간한 남북통일말사전은 북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남한말과 남한 사람들이 모르는 북한말의 의미를 소개하고 동의어를 제시한 책임.

■ **제주지사, 감귤 1만톤 북한에 추가 지원(1/23, 연합)**

- 김태환 제주지사는 23일 “노지감귤 1만톤을 북한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 김지사는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지감귤 생산량 65만톤중 현재 53만톤이 처리됐다”며 “남아있는 감귤을 원활히 처리하고 감귤가격 회복하기 위해 2007년 12월 북한에 7천500톤의 감귤을 지원한 데 이어 1만톤을 이번 설 이전까지 보내겠다”고 발표
- 그는 “북한에 감귤을 추가로 보내는 데 필요한 구입비 20억원은 농림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했으며, 20억~25억원으로 추정되는 물류비는 통일부의 남북교류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해 도비로 충당하겠다”고 설명

■ **충북도, 대북 농업 지원 나섬(1/21, 연합)**

- 충북도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섬. 21일 도에 따르면 황해도 봉산지역 주민들의 자급자족 기반 마련을 지원키로 하고 우선 올해 1억5천만원을 들여 5만톤의 옥수수 종자와 농기계를 지원하고 시설 채소 농사가 가능한 3천600㎡ 규모의 비닐하우스도 설치해 주기로 합의했으며 도는 이를 위해 통일부에 남북 경험 지원 자금도 신청키로 함.

1.28-2.2

1월
5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일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핵문제 해결 北입장 불변(1/31, 신화통신)

- 김정일 위원장은 방북 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일행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은 6자회담의 추진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최근 발생한 어려운 상황은 일시적인 것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 “6자회담 당사국들은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충실한 이행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북한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북한은 중국과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를 본보기 삼기를 희망한다”고 경제 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했으며 왕 부장에게 중국이 겪고 있는 남부지방 폭설 피해에 대해 위로하고 2008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도 기원

■ 김정일, 자강도 청년광산 시찰(1/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위원장이 자강도 중강군 3월 5일 청년광산을 현지지도, 김 위원장은 이 광산의 채굴장, 파쇄장, 선광장 등을 둘러보며 노동자들을 격려한 뒤 “유색금속(비철금속)생산을 정상화 하는데서 기본은 대량 낙광, 대량 처리하여 정광생산을 앞세우는 것”이라며 “모든 채굴 및 운반, 선광설비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잘하여 그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과업을 제시, 또 “광산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대를 두고 분한있게(헤프지 않게) 아껴쓰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탐사를 앞세워 예비광량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과 함께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심층 채굴 대책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적
- 김 위원장은 또 군(郡)의 책임일군(간부)들을 만나 농사를 비롯한 경제사업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농업생산을 부단히 늘려 군내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고 언급
- 이날 김 위원장의 중강군 시찰에는 박도춘 노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가 수행

나. 정치 관련

■ 김정일 생일 앞두고 ‘찬양’ 본격화(2/3, 민주조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2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6회 생일(2.16)을 앞두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주민들의 충성을 유도하는 찬양 작업을 본격 시작
- 민주조선은 3일 ‘영원하라 선군조선의 봄이여!’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극복은 바로 김 위원장의 뛰어난 영도력 덕분이라며 김 위원장의 생일이 들어 있는 2월은 “인민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고 가장 소중한 향기를 안겨주는 참다운 삶의 꽃”이 피는 “봄”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도 ‘선군정치사의 갈피에 빛나는 불멸의 군사적 업적’이라는 글에서 “장군님께서서는 영장으로서의 특출한 천품과 자질, 비범한 군사적 실력으로 미제(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에 이어 1969년 4월 미제의 대형 간첩비행기 ‘EC-121’ 격추작전을 조직 지휘하시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쟁 접경으로 치달던 미제와의 군사적 대결전도 승리적으로 결속(마무리)하시었다”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 생일에 즈음해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그레나다에서는 김 위원장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라는 논문에 대한 해설 모임과 영화 감상회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등에서는 강연회 등이 각각 열렸다고 보도
- 2일 조선중앙방송은 “각지 당조직들에서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앞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장군님의 선군혁명 역사를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

■ 부르주아 사상문화 철저 경계(1/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부르주아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실현하는 데 제국주의자들이 써오던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제국주의자들은 시대의 변화 발전의 흐름을 타고 ‘협조’와 ‘교류’ 등

각종 허울좋은 간판 밑에 공개된 방법으로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유포시키고 있다”고 주장

■ **경영비리 · 적자 무역회사 대거 ‘퇴출’ (1/31, 연합)**

- 북한이 2007년 연말부터 올 1월까지 당, 군, 내각, 도 인민위원회 산하 무역회사에 대한 강도높은 검열을 벌여 경영실적이 좋지 않거나 비리가 적발된 회사를 대거 퇴출시킨 것으로 알려짐. 이번 검열은 2007년 7월 말 함경북도 연사군에서 목재수출을 담당했던 금수산의사당경리부 산하 룡라888 무역회사 지사장 오문혁이 목재 밀수 사건에 연루돼 총살을 당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짐. 북한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당경리부 산하 무역회사에 대한 후속 감사를 벌여 2007년 10월께 부총리급 대우를 받는 총사장 1명을 전격 해임하고 검열의 범위와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시켰다고 복수의 대북소식통들은 전함.
- 검열 확대조치로 평안북도 무역국 산하의 무역회사 관계자들도 2008년 1월초 중앙에서 내려온 검열반의 감사를 받느라 중국 단둥(丹東)으로 출장을 나오지 못해 중국측 무역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으나 북한 당국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무역회사들이 석탄이나 철광석 등 지하자원과 수산물을 수출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차액을 착복한 사례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전해짐.

■ **농근맹 제55차 전원회의 개최(1/30, 조선중앙통신)**

-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55차 전원회의가 30일 평양에서 개최, 회의에서는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37차 전원회의 개최(1/29, 조선중앙통신)**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37차 전원회의가 29일 평양에서 개최, 회의에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중앙, 지방의 청년동맹 간부들이 참가해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고 통신은 설명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60차 전원회의 개최(1/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60차 전원회의가 28일 평양에서 개최, 회의에는 중앙위 위원과 중앙, 지방 간부들이 참가해 신년 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고 통신은 보도

■ 보안법 철폐 거듭 주장(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대결시대의 잔재”라며 철폐를 촉구

■ 새 세대 정신력 계승 강조(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정신력과 경제력, 군사력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3대 요소, 3대 기둥”이라며 세대를 이은 “정신력의 계승”을 강조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가리키는 길이 가장 올바른 승리의 길이이며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모른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동당의 사상에 대한 “절대적 신봉”을 강조한 뒤 “오늘의 강성대국 건설 시대, 정보산업시대에 사상·정신적 요인의 의의와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평양 서포닭공장, 닭 배설물 가공처리 공정 설치(2/1, 조선중앙TV)

- 평양 서포닭공장은 평양시 가금지도총국과 함께 닭 배설물 가공처리 공정을 설치했다고 보도, 이 공정은 크게 배설물 건조와 발효처리 등 두가지 공정으로 구성됐으며, 닭의 배설물을 가공해 사료로 이용할 수 있어 기존 먹이 분량의 20%를 절약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언급

■ 연어새끼 100만마리 동해 방류 계획(2/1, 조선신보)

- 회귀성 어류인 연어 새끼 100만 마리를 동해지구 강들에 놓아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수산성 양어관리국은 연어 새끼를 대규모로 방류하는 이 사업을 위해 함경남도 금야강 기슭에 연어 완공을 목표로 연어 종어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
- 양어관리국은 붕어, ‘기념어’, 화련어, 초어, 메기, 열대붕어, 칠색송어 등을 생산하는 전국 양어장에 자연먹이를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

※ 북한은 식량난 해소책의 하나로 양어장 조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현재 전국 시·군마다 20~100정보(1정보는 약 9천917㎡) 씩의 인공 양어 연못을 갖췄다고 알려짐.

■ 과학자, 기술자 꺾기모임(2/1, 조선중앙방송)

- ‘과학자, 기술자 꺾기모임’ 이 1월 31일 최태복 노동당 비서와 리광호 노동당 부장, 변영립 국가과학원장, 김용진 교육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모임에서 국가과학원 백천호 부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 한승주 실장, 오산덕정보센터 최진국 실장이 토론했으며, 참석자들은 컴퓨터 기술을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방송은 설명

■ 올해 과학기술 행사 40여건 계획(1/31,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 북한이 올해 과학기술 토론회를 40여건 열기로 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는 올해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부문과 과학, 농업과학, 교육 부문 등에서 모두 40여건의 발표회를 갖기로 계획을 세움. 또 기계설계, 나노과학 기술 등 기초첨단 부문의 성과 전시회와 기초식품, 육종, 농기계 부문 등 경공업 및 농업 전시회 등 모두 10여건의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
- 대표적인 행사는 5월 중앙과학기술 축전과 8월 전국 광업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9월 김책공업종합대학 창립 60돌 기념 전국 교육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등이 있음.
- 조선신보는 이에 대해 “과학기술이자 경제강국” 이라고 지적인 새해 신년 공동사설의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계획”의 하나라며 이들 발표회에서 “경제강국 건설에서 이룩된 가치있는 연구성과와 경험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함. 또한 “작년말에 진행된 조선 지식인대회를 계기로 경제부흥에 이바지해나갈 과학자, 기술자들의 기세와 열의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여기에 토대해 연맹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짜고있다”고 강조

■ 北, 산업디자인도 쓰기 편하고 멋있게(1/31, 조선신보)

- 북한에서 경제부문 개진(개선),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공업미술도안(산업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사용이 편리하고 미적 감각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기계공업성 소속 산업미술창작사의 리영택(62) 사장은 “최근 연간 인민경제의 전반적 부문들에서 기술개진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공업미술도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밝힘.
- 신문은 산업미술창작사가 금성트랙도르(트랙터)공장에서 생산되는 ‘충성호’의 형태개조 계획에 따라 딱딱하게 보이던 설비를 작업 편의를 위해 원활한 곡선으로 바꾸는 작업을 올해 첫 과제로 수행했다고 보도하고 “기계설비의 도안창작에서는 쓰기 편리하면서도 새 시대의 미감에 맞는 설계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
 - ※ 산업미술창작사는 운전(운수), 공작기계 등의 형태도안과 기계제품의 상표, 포장도안 등을 하는 북한 유일의 산업디자인 전문창작기관으로 6.15호 전기기관차, 부흥호 전차, 락원 유압식굴착기 등의 디자인을 개발

■ 北김책공대, 컴퓨터로 그린 보석화 선배(1/26, 통일신보)

-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컴퓨터를 이용해 보석화를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 풍경화 등에 적용하고 있다고 통일신보가 소개

라. 군사 관련

■ 南전력증강사업 맹비난(2/2, 통일신보)

- 북한 언론매체가 국군의 전력증강 사업과 ‘키 리졸브’ 등 한미 합동군사 연습을 이유로 “남조선 군부”를 지목해 맹비난
- 통일신보는 남한 국방부의 전력증강 사업을 자세히 거론하며 “민족의 통일 열기와 평화보장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 ‘대결을 불러오는 위험한 무력증강 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지스함에 대한 SM-6 장거리 함대공미사일 장착 계획 등을 “무분별한 전쟁무력 증강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이는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가로막는 반민족, 반통일적 망동”이라고 주장

■ 북한軍, '주민과 가까이' 노력 진행(2/1, 평양방송: 1/13, 조선중앙방송)

- '원민(援民)기풍' 과 '군민일치' 를 외치고 있는 북한 인민군이 새해 들어 주민들에게 해산물을 지원하고 농촌을 돕는 등 신년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인민생활 제일주의" 실천에 앞장
- 평양방송에 따르면 북한 해군은 1월 29일 털게 수톤 등 고급 수산물을 평양 수산물 백화점에 전달, 이 백화점과 평양시 인민봉사지도국에서는 군이 지원한 털게 등을 평양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봉사망' 을 만들.
- 조선중앙방송은 1월 13일 인민군 군인들의 농장 지원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를 통해 평안남도 온천군 농장에 300여톤의 거름을 전달한 것을 비롯, 평안북도 염주군 삭주군 읍협동농장과 량강도 삼지연군 흥계수 농장 등에 영농자재와 거름을 지원했다고 보도하고 이밖에도 북한 군인들은 함경북도 성진제강연합기업소와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등 공장도 방문해 지원 물자를 전달하고 일손을 보탬다고 강조

■ 소련 붕괴는 軍 감축 · 위축 때문(2007년 4호, 사회과학원 학보)

- 사회과학원의 전하철 부교수(박사)는 사회과학원 학보 최근호(2007년 4호)에 기고한 '혁명무력의 파괴는 현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정치개혁의 기본'이라는 글에서 옛 소련의 붕괴 원인을 "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완전히 무장 해제"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
- 그는 또 "현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군대의 비(非)정치화, 비사상화를 추구하고으로써 혁명 군대가 자기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높이 발휘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당이 위협에 처했을 때 '중립' 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정권을 반대하는 우익 반동들에게 이용당하는 결과를 빚어냈다"고 분석

마. 사회 · 문화 관련

■ 설맞이 중앙기관 널뛰기 대회 개최(2/3, 조선중앙TV)

- 설을 앞두고 평양 청춘거리 송구(핸드볼)경기관에서 널뛰기 경기가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중앙기관들이 3개조로 나뉘어 참가한 이번 경기에

서 대외봉사국이 1등, 조선중앙방송위원회 2등, 상업성이 3등을 차지

■ 감자음식 · 저장음식 품평회 개최(2/3,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창광봉사관리국이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감자음식 품평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품평회에는 감자를 이용한 주식 60여가지, 요리 140여가지, 단맛 음식은 200여가지가 소개
- 평양시 인민봉사지도국 등 30여개 단위가 참가한 저장음식 품평회가 평양면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품평회에는 장아찌와 김치, 식혜 등 전통 저장음식이 소개됐으며, 참가자들은 저장음식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공유

■ 가스 중독 줄이는 연탄구멍 연구 · 발표(2/2, 조선중앙TV)

- 국가과학원이 북한 주민들의 잦은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산화탄소를 가장 적게 낸다는 연탄 구멍의 크기와 규격 등을 연구 · 발표, 국가과학원 환경공학연구소 김혜림 박사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우선 일산화탄소 방출량을 종전에 비해 훨씬 줄일 수 있고, 연소효율도 높임으로써 석탄 소비량을 줄이게 됐다”고 주장

■ 설맛이 각도 특산물 식당 명절음식 품평회 개최(2/1, 조선중앙TV)

- 평양 신흥관에서 열린 품평회에는 각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음식이 소개됐으며, 특히 강계면옥과 경암각 등에서 선보인 음식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

■ 北 ‘온천살림집’은 ‘민박+콘도’ 복합개념(1/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자강도 동신군 원흥온천 지구에 온천 치료실을 갖춘 살림집 40채가 신축됐다고 보도, 또 이 온천 인근에는 현대식 장비를 갖춘 ‘광천 물리치료실’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통신은 보도
- 북한이 최근 유명 온천지구에 여러칸의 방과 온천물을 이용한 치료실을 갖춘 살림집 촌을 잇따라 건설하고 있어, 이러한 ‘온천 살림집’으로 가족단위 온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온천 살림집 촌은 일반 주택 수십채로 구성돼 있고, 이들 살림집마다 여러 칸의 살림방과

세면장, 그리고 “늘 흘러드는 온천물을 이용한 치료실”이 갖추고 있음. 특히 이들 살림집은 한방에 외부 손님 한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부엌도 집주인과 온천 손님들이 서로 불편이 없도록 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北, ‘키크기 비법’ 소개(2007년 6호, 인민교육)

- 북한의 격월간 교육잡지 ‘인민교육’ 최근호(2007.6호)는 학생들의 발육이 성별, 연령, 계절, 체질별로 다르다면서 균형잡힌 발육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권장, “학생들의 몸 균형을 바로잡고 키를 크게 하려면 나이와 성별에 따르는 발육 특성에 맞게 운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

※ 북한에서는 “체육교육의 기본은 키를 크게 하는 것”이라며 키크기 운동의 생활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유치원과 중학교(중·고교 과정)에 ‘키크기 영양제’를 공급하는 등 청소년 발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北, 인구센서스 10월 1~15일 실시(1/30, 연합)

- 북한이 유엔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인구센서스)가 오는 10월 1~15일 실시, 이번 인구조사는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요원 14만 명이 호별 방문을 통해 가족수, 가족구성원의 직업, 개인소득, 가구와 가전제품 목록 등을 조사

- 북한의 인구센서스를 위해 UNFPA 자문관 1명이 평양에 상주하고 있으며 조사가 본격 실시되는 10월에는 북한 조사요원을 돕기 위해 10명의 국제기구 관계자가 방북할 예정이며 북한 인구센서스의 예상비용 약 550만달러 가운데 400만달러를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

■ 도박은 사회적 마약(1/18, 민주조선)

- 민주조선이 “도박은 사회적 마약”이라며 도박의 해악성을 경고하면서 특히 ‘온라인 도박게임 중독’을 예시, ‘도박행위는 운명을 망치는 길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현대적인 도박장이 늘어나고 정보수단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도박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도박이 한 번 맛을 들이게 되면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인

생의 함정, 사회적 마약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

※ 북한 형법은 제266조 도박죄 항목에서 “돈 또는 물건을 대고 도박을 한 자는 2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

■ 바둑 ‘열풍’ (1/29, 조선신보)

- 북한의 신세대 사이에 바둑 열풍이 불고 있으며 진원지는 평양시 대동강 구역에 있는 문수바둑장이라고 조선신보가 보도

■ 北, IFRC의 재난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1/29,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북한 내에서 벌이고 있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재난예방 사업의 효과를 인정, IFRC의 재해예방·관리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IFRC가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북 구호사업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는 2007년 여름 수해 때도 IFRC가 ‘지역 재난 방지(CBDP)’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평안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의 50개 군에서는 가옥 및 인명 피해가 거의 나지 않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됐다고 자평하고, 북한 중앙과 지방 당국도 IFRC가 지난 6년간 북한에서 실시해오고 있는 재난구호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고 보고

- 보고서는 2007년 11월 북한 조선적십자회와 국가과학원이 3개 종묘장 산림전문가와 기술자 30여명을 위한 워크숍을 사흘간 공동주최한 데 이어, 12월에는 지역주민 3만1천명이 참여해 홍수와 산사태에 취약한 곳에서 220ha의 면적에 묘목 190만 그루를 심었다고 보고하고 이러한 산림조성 프로그램은 북한이 노르웨이 적십자사와 협력 아래 5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2007년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할 것이라고 IFRC 보고서는 설명

■ 北 IT인재 프로그램 개발 활발(1/2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평양학생소년궁전 등에 컴퓨터 수재 교육을 위한 특별반이 설치된 이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 열린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서 이 “컴퓨터 수재 양성기지”의 교사와 학생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총 160여건 입상했다고 보도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北·美, 실무접촉 진지하고 실무적이라고 평가(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미 국무성 대표단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며 “방문 기간 진행된 조(북)·미 실무접촉에서는 6자회담 10·3 합의이행에 나서는 관심사들을 논의하였다”고 보도, 통신은 “문제 토의는 진지하고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美의 대이란 제재는 시대착오적(1/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대(對)이란 고립압살 책동이 파탄에 직면했다”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 통신은 “미국의 계획 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는 반미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해나가는 이란”이라며 “미국은 이란에 ‘테러지원국’의 감투를 씌우고 평화적인 핵 활동을 핵무기 개발로 몰아대고, 이란과 다른 나라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

■ 美에 “핵위협” 철회 촉구(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근원을 제거하려면 미국이 대북 핵위협과 적대적 침략정책을 철회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

■ 美 아태 군사력증강 비난(1/29,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미국의 양면적인 태도에 의해 조(북)미 사이 현안 문제가 오늘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민주조선은 ‘말과 행동이 달라서야 되겠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미국은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몫을 안고 있으며 조미 사이 현안 문제 해결을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향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앞에서는 이 소리를 하고 돌아앉아서는 행동을 달리하고 있다”고 비난
- 신문은 그 사례로 미국이 최근 발표한 ‘전력배치 로드맵’을 들고, 이는 알

래스카, 하와이, 괌 등 태평양에 공군력을 집중 배치하려는 계획이라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미군 무력의 21세기 최중요 군사활동 지역으로 삼고, 그 토대를 닦아나가고 있다”고 주장

■ 北, 6자회담에 헬싱키프로세스 적용 불가(1/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핵 문제를 인권·경제지원과 연계해야 한다”는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대사의 발언을 “비핵화에 대한 희망”이라고 맹비난하고 “6자회담은 절대로 ‘헬싱키 과정’에 태울 수 없다”고 주장, 중앙통신은 ‘비핵화에 대한 희망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는 미국에서 그와 같이 세상 물계(물정)는 커녕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핵문제의 전진과 조(북)미관계 개선과정에 대해 못마땅해 하면서 판을 깰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을 비난

나. 북·중 관계

■ 中왕자루이 평양 떠나(2/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일행이 2일 중국으로 귀국

■ 中왕자루이, 김책공대 등 방문(2/1, 조선중앙TV)

-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1일 평양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3.26전선공장을 방문, 1월 29일 방북한 왕 부장은 3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으며, 31일에는 개성공단과 판문점을 방문

■ 김정일, 中후진타오에 폭설피해 위문(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일 중국의 폭설 피해에 대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앞으로 ‘위문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위원장은 전문에서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와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보낸다”면서 “중국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국 정부와 인민이 피해 후과를 하루 빨리 가시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표현, 김 위원장은 30일 평양을 방문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 남부지방의 폭설 피해에 위로의 뜻을 전달

■ 中외교부, 北대사관 초청 연회(1/30, 조선중앙방송)

- 중국 외교부가 29일 베이징에서 최진수 중국주재 북한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을 초청해 신년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모임에는 허야페이(何亞非) 부장 조리를 비롯한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새로 건설된 국가배구관과 역사문화유적단 조사를 참관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했다”고 방송은 보도
- ※ 이에 앞서 1월 22일 북한 대사관은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 등 중국 외교부 간부들을 초대해 연회를 열었으며, 1월 24일에는 중국 노동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를 초청해 연회를 개최, 중국 대외연락부도 1월 18일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친선모임을 개최했음.

다. 북·일 관계

■ 日, 납치문제 매달리면 관계 진전 없다(1/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고발장’을 발표, ‘세계최대의 납치국 일본의 위안부 범죄를 단죄한다’ 제목의 고발장에서 특히 “(일본의) 현 집권자와 이전 정치인들이 ‘일·미·남조선연대강화’로 핵문제와 함께 납치문제를 일괄타결하겠다고 하면서 동맹국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납치문제와 관련한 후쿠다 총리의 미 CNN방송 인터뷰, 테러지원국 해제와 납치문제를 연계하려는 일본당국자들의 발언 및 움직임을 비판
- 고발장은 이어 “정권은 교체되었으나 현 일본당국이 선임 ‘납치내각’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그들도 여전히 우리 인민에게 가한 납치범죄에 대해 배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본당국이 기를 쓰고 그 누구의 납치문제를 떠드는 것은 수백년동안 계속된 저들의 납치범죄를 가리우려는 어리석은 기도”라고 강조

■ 日의 수도권 MD는 자살행위(1/30,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일본이 최근 도쿄(東京) 시내에서 지대공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발사후보지를 조사한 것과 관련, “수도권에 선제 공격용 미사일방위체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수도 전체를 상대측의 1차 타격목표로 내맡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자살행위”라고 주장

- 민주조선은 일본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이유로 “북조선의 미사일 위협’이 ‘박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누구에 의한 ‘안보위협’에 불안을 느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북한)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 대국들을 겨냥하고 있는 군사적 압박용, 선제공격용”이라고 주장

■ 조총련계 건물 매각에 반발(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오사카본부가 있는 오사카 조선회관을 매각토록 한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테러행위”이자 6자회담을 방해하기 위한 처사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보도, 노동신문은 ‘엄중한 정치적 테러행위’라는 논평에서 일본이 ‘한·미·일 3각공조’ 주장과 때를 같이 해 “(조)총련 건물 강탈 책동을 벌이는 것은 우리(북한)를 의도적으로 심히 자극하여 6자회담 진전에 그늘을 던지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

라. 북·러 관계

■ 北주재 러대사관, 北외무성 초청 신년연회(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월 31일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을 초청해 친선모임을 갖고 양국간 관계 발전을 다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모임에는 북한측에서 공석웅 부상을 비롯한 외무성 관계자들이 초대됐으며 러시아측에서는 발레리 수히닌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참석
- ※ 1월 18일에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기남 노동당 비서, 지재룡 박경선 당 국제부 부부장등과 러시아 대사 및 대사관 직원들이 참석한 신년 친선모임을 주최했음. 1월 24일에는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 등을 초청해 새해맞이 연회를 개최한 바 있음.

마. 기타 외교 관계

■ 北김영남, 스리랑카 독립 60돌 축전(2/3,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스리랑카 독립 60주년에 즈음해 마힌

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과 스리랑카는 1970년 6월 수교했으나 1971년 북한 대사관이 신할라 극단주의 세력인 자나타 비무크티 페라무나에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폐쇄당했으며, 그 이후 국교가 단절된 것은 아니나 양국은 인도 주재 대사관을 통해 외교 업무를 대행하며 관계를 유지

■ 北김영남,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장관 면담(1/31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월 31일 방북 중인 몽골 정부경제대표단을 만나 양국간 친선관계 발전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김 상임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철명 건설도시개발부 장관이 이끄는 몽골 정부경제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였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밝히지 않음.
- 이날 회담에는 북측 립정만 무역상과 북한주재 몽골 대사가 참석, 몽골 대표단은 이날 김 상임위원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했으며, 금수산 기념공전을 찾아 고(故) 김일성 주석에게 “경의를 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
- 철명 건설도시개발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정부경제대표단 2월 2일 평양 출발(2/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그리스도연맹 대표단 독일 방문위해 평양출발(2/2, 조선중앙통신)

- 조선그리스도연맹 중앙위원회 강영섭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연맹 대표단이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2일 평양을 출발

■ 北 김영일 내각 총리, 태국의 사막 순다라벳 신임 총리 취임 축전(1/30, 조선중앙통신)

- 김영일 내각 총리는 태국의 사막 순다라벳 신임 총리에게 취임 축전을 보냈으며 축전에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좋게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수상(총리)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충심으로 축원하였다”고 보도

■ 北김영남,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 축전(1/30, 연합)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10차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1.31~2.2)에 축전을 보내 아프리카 국가와 친선을 강조, “앞으로도 아프리카동맹(AU)과 그 성원국가들과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활력 있게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 출국(1/29, 조선중앙통신)

- 길철혁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이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세계민주청년 총이사회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9일 평양을 출발

■ 北김영남, 수하르토 전 대통령 사망에 조전(1/29,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8일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의 사망에 위로전문을 보냈다고 보도

3 대남정세

■ 남북, 개성서 올림픽응원단 참가문제 논의(2/3, 연합)

- 남북은 4일 베이징(北京) 올림픽(8.8~8.24)에 남북 응원단이 열차를 이용, 공동으로 참가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실무접촉을 실시
-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서 양측은 2007년 12월 28일 1차 접촉에 이어 응원단 규모와 구성을 위한 실무 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 회담 대표로 우리 측은 이상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 3명이, 북측은 황철 민족화해협의회 부장 등 5명이 나섬.

■ 개성공단 통행시간 연장, 시행 몇 시간 만에 '취소' (1/31, 통일부)

-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경의선 도로의 통행시간 확대 조치가 30일 처음 시행됐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된 것으로 알려짐. 남북은 2007년 제1차 총리회담의 핵심 합의사항인 개성공단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개선과 관련,

통행시간 확대 및 수시통행 허용 조치를 30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오전 중에 갑자기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 조치를 연기하자고 통보해왔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31일 전언

- 현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개성공단을 출입할 수 있으나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면 오전 7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수시로 통행이 가능, 북측은 전통문에서 '통행시간을 확대하고 군사분계선(MDL) 통과 시점을 현행 하루 12차례에서 수시로 변경해보니 실제 운영 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낸 것으로 알려짐.

■ 북남관계에 외세가 길 틈없다(1/26, 통일신보; 1/30,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통일신보는 “북남관계의 발전에 민족의 자주도 있고, 나라의 평화도 있으며 민족의 대단합도 있다”며 6·15공동선언과 이의 “실천강령”인 10·4남북정상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을 주장, 통일신보는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라는 기사에서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며,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인 북남관계에 외세가 끼어들 틈은 없다”고 강조

■ 남북, 개성서 철도협력회의 개최(1/30, 연합)

- 남북은 1월 29~30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철도협력분과위원회 의를 열어 화물열차 운행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
- 남북은 회의에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와 관련한 1차 현지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추가 정밀조사 여부를 논의하는 한편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의 운행 개선 방안 등을 협의

■ 남북, 해외 경공업 공장 공동 참관(1/28, 연합)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이하 협회)는 남북 실무자들로 구성된 해외공장 참관단을 구성, 29일부터 2월 4일까지 한국 기업이 투자한 중국과 베트남 소재 공장 7곳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 협회는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참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방문할 7개 공장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우리 측 기업이 투자한 대표적 경공업 공

장들”이라고 소개

- 이번 방문단은 전현준 협회 경공업실장 등 남측 4명,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리영호 실장 등 북측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

■ 北, 월드컵예선 남북대결때 응원단 불허할 듯(1/28, 연합)

- 북한이 오는 3월 26일 평양에서 열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3차예선 남북 대결을 앞두고 남측 응원단의 참관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대북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오는 3월 26일 평양에서 치러 지는 월드컵 남북 예선경기에 남측 축구협회 관계자 및 취재진 등 필수인 원을 제외하고 남측 응원단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북측은 이번 월드컵 예선전이 친선경기가 아니라 승 패가 곧바로 월드컵 진출에 직결되는 중요한 경기라는 점을 감안, 남측의 응원단을 받지 않고 6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예선전에도 북측 응원단을 보내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힌 상태”라고 설명

■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北에 내복 3700벌 전달(1/28, 연합)

- 대구의 대북지원단체인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가 북한 개성을 방문해 기금 으로 마련한 어린이 내복을 전달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Review

2.3-2.10

2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나. 경제 관련
- 다. 군사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러 관계
-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北청년학생, 경제강국 건설 제1돌격대 다짐(2/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청년학생들은 7일 량강도 삼지연군 백두산에서 ‘맹세모임’을 열고 2012년을 기한으로 한 강성대국 건설의 ‘제1돌격대’가 될 것을 다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8일 보도
- 이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가로 알려진 ‘백두산 밀영’에서 열린 모임에서 고(故) 김일성 주석의 출생 100돌을 맞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 후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나가는 혁명의 수뇌부 용위의 제1결사대, 선군정치의 철저한 옹호관철자, 경제강국 건설의 제1돌격대가 되겠다”고 결의
- 이 모임에는 2월 4일 량강도 혜산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서 ‘백두산 밀영’ 답사행군 출발모임을 가졌던 북한 각지에서 선발된 청년학생들이 참석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 귀국(2/7, 평양방송)

-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민주청년연맹 총이사회 회의에 참가했던 북한의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대표단이 7일 귀환

■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에 려춘석 임명(2/4, 연합)

- 북한 최고의 군사 종합학교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새 총장에 인민무력부 부부장이었던 려춘석(78, 呂春錫) 대장을 임명한 것으로 4일 확인
- 조선중앙통신은 4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주제로 한 중앙연구토론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려 대장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장”이라고 호칭함.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총장은 2005년부터 지기선 총장이 맡아왔으나 2007년 7월 사망한 후 후임이 알려지지 않았음.
- 신임 려 총장은 1948년 중국군으로 입대했다가 1950년 북한군으로 편입, 1975년 소장(남한의 준장), 1984년 중장(소장)으로 진급, 김 위원장으로부터 작전 설명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1992년 상장(중장)에 이어 2002년 4월

대장으로 승진했으며 1999년 9월부터 인민무력성 부상(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으로 일해왔음. 러 총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1980년 9군단을 창설하면서 초대 군단장으로 임명되는 등 ‘작전통’으로 평가되며 김 위원장의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0월 고급군사학교로 문을 열었으며 1954년 8월 김일성육군대학으로 잠시 개명됐다가 현재의 명칭으로 불림.

나. 경제 관련

■ 北밀가루가공공장, 외제 라면 몰아내자(2/10, 조선신보)

- 북한이 올해 ‘국산라면’ 대량생산에 적극 나섬. “올해부터 국산(북한제품) 속성국수(인스턴트라면)가 인민들에게 널리 공급될 전망”이라며 평양시 만경대구역 삼흥동에 위치한 평양밀가루가공공장에서 “국내 원료에 기초한 생산공정”을 확립했다고 소개
- 평양밀가루가공공장의 로원철 기사장은 “우리 나라(북한)에서 국산 속성국수를 보지 못하게 된 지 오래”라면서 1990년대까지 북한산 라면이 활발히 판매됐지만 최근에는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다고 밝힘. 중유가 있어야 공장 보일러를 돌릴 수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와야 할 중유의 수입 통로가 차단”되어 연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산 라면의 생산이 중단되고 중국을 비롯한 외제 라면이 유통됐다고 설명
- ※ 북한에서 라면은 ‘즉석국수’라고 부르며 2000년 10월 외자를 유치, 평양 대동강변에 최초의 라면공장인 대동강즉석국수공장을 건설한 바 있음.

■ 운전기사 출신이 이끄는 北최고 가구회사(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설립 15년만에 북한 최고의 가구생산 회사로 발돋움한 평양 형제산구역 소재 영광가구합영회사의 성공담을 소개, 이 회사의 신남철(47) 사장이 내각 건설건설재공업성의 운전기사 출신, 32세에 사장으로 발탁된 그는 종업원 7명에 불과했던 회사를 북한내 고급가구 시장을 제패한 회사로 키워냄.
- 신 사장이 회사경영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한 것으로 시간 절약과 생산능률 제고를 위해 다음날 생

산과제를 전날에 미리 제시했고, 고급 인력인 연구사들이 노동현장에서 작업반장을 겸임하도록 조치

- 또 통제방식이 아니라 “일한만큼 분배받는” 시스템을 갖춰 “종업원들이 자신의 노동이 공장에서 받게 될 생활비에 어떻게 환원되는가를 알게” 했으며 사장실을 따로 두지 않고 당비서, 재정실무담당자 등 임원 모두와 한 사무실을 이용하는 등 술선모범도 보임. 아울러 가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연수도 다녀옴.
- 자신감에 넘쳐있는 신사장은 올해 제품 종류를 종전 90종에서 150종으로 확대하고 생산량도 1만5천~2만점을 늘리겠다고 밝힘. 그는 이어 “회사의 총적 목표는 100% 우리 자재에 의한 가구생산”이라며 현재 국내 자재 비율은 60% 이상이라고 덧붙임.

■ 간부는 인민생활 향상 위해 노력하라(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모든 간부들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뛰고 또 뛰어야 한다”며 정권 수립 60주년(9.9)을 맞는 올해를 “인민생활에서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되게 해야 한다”고 촉구
- 노동신문은 ‘일꾼(간부)들은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자’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간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 뒤 “일꾼들은 우리 경제발전의 전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의 “현지지도 강행군”에 이어 정초부터 예성강발전소 건설장, 강계닭공장, 강계돼지공장, 장강군 등을 잇달아 시찰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인민의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끌어주고 있다”며 “모든 일꾼들이 장군님(김정일)의 강행군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고 요구

■ 北, 출력 배증 신형 트랙터 생산(2/4, 조선신보)

- 북한이 견인능력을 배로 늘리고 모든 부품을 국산화한 신형 트랙터를 생산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는 금성트랙토르(트랙터)공장이 견인능력을 기존 28마력에서 60마력으로 늘린 신형 트랙터 ‘천리마-2000’을 새로 생산

※ 금성트랙도르공장은 일제시대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수공업 공장이었으나 1958년 첫 트랙터 시제품을 만든 이후 꾸준히 성장, 농업 및 임업용 종합 트랙터공장으로 발돋움 했음.

다. 군사 관련

■ 북한군, 기갑부대 동계훈련 수준 강화(2/10, 연합)

- 한·미 군당국은 북한군이 작년 말부터 시작된 동계훈련에서 기갑부대의 훈련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 그 배경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정보 당국은 “예년에는 포사격 중심으로 훈련을 했지만 올해는 기동훈련과 포사격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기갑부대의 기동훈련이 늘어난 것은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유류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언급

■ 北, 한·미 합동군사훈련 비난 이어가(2/7,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성명)

- 3월초 실시되는 한미연합사의 ‘키 리졸브(Key Resolve)’ 군사연습과 한·미 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 훈련(Foal Eagle)’을 앞두고 북한이 연일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비난
- 7일에도 북한의 대남(對南)기구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과 남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6자회담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때에” 이러한 한미 합동군사 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공화국(북한)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는 극히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

라. 사회·문화 관련

■ 북한 최초로 전통 저장음식 품평회 개최(2/1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인터넷판은 북한의 평양면옥에서 장아찌, 김치, 동치미, 식혜 등 저장음식을 주제로 한 “이채를 띠는 품평회”가 1월 31일 개최되었다고

보도하고 “이번 품평회의 목적이 전통적인 저장음식을 발굴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며 “식당, 전문공장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름만 알려진 저장음식을 찾아내 오늘의 가공법으로 재현했다”고 소개

■ **北리학범, 전 만수대예술단장 사망(2/10, 내나라)**

- 북한 최고 권위의 예술단체인 만수대예술단을 이끌었던 작곡가 리학범이 70세를 일기로 사망, 북한 웹사이트 ‘내나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상’ 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만수대예술단 고문 리학범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2월 5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
- 리학범은 평안북도 염주군 출신으로 평양음악무용대학 작곡학부를 졸업,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 지도원,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만수대예술단 작곡가를 거쳐 1995년부터 만수대예술단 단장 역임,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장으로 활동, 고전명작으로 불리는 ‘꽃 파는 처녀’, ‘안중근 이등박문을 쓰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 영화의 배경음악을 창작하고 ‘아버이 수령님 고맙습니다’,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 ‘조선아 너를 빛내리’ 등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노래한 작품을 다수 작곡

■ **北수예센터, ‘양면수예’ 기법 개발(2/10,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수예센터에서 두 가지 문양을 담은 ‘양면 이색 이형태 수예’ 기법을 개발해 대량생산을 시작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은 이 수예기법이 투명한 얇은 천의 앞면과 뒷면에 색깔과 형태가 다른 작품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하며 이후 “새로운 형식의 수예가 나왔다는 소문이 나돌게 되면서 센터에는 제작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센터에서는 새 기법을 보다 세련시키는 한편 2월부터 공장에서 이색 이형태 수예작품을 다량생산하게 됐다”고 보도

■ **김정일 생일 기념우표 발행(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6회 생일(2.16)을 맞아 묶음전지 1종과 개별우표 1종의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묶음전지에는 윗 부분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기념’, ‘2.16’이라는 글발이 찍어져 있고 중앙에 세계지도를 배경으로 김정일화(花)를 그려 넣었다고 보도

■ 北, 설 연휴에 평요리 특별식 제공(2/8, 조선중앙방송)

- 설 연휴 이틀째인 8일 북한 각지에서 민속놀이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식당에서는 꿩고기 요리 특별식이 제공되는 등 명절 분위기가 한껏 고조,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을 맞아 평양시 식당들에 꿩 고기를 대량 공급하도록 했다며 “평양시 인민봉사지도국과 시안의 급양봉사부문 일꾼들은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요리와 음식들을 만들어 봉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보도

■ 北여성들, 농장원과 결혼은 절대 못해(2/8, 연합; 제110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에서 젊은 여성들이 농촌지역 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 “요새 (북한의) 젊은 여성들은 죽어도 농장원에게 시집가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농장원과 결혼하면 본인은 물론 자식들까지 대대로 농장에 뼈를 묻어야만 하기 때문”이며 육체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농촌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北, 고구려 군현 유적 20여개 발견(2/7, 조선중앙방송)

- 북한에서 고구려의 중앙집권적 지방통치 체제인 군현(郡縣)의 정치, 군사제도를 보여주는 유적이 잇따라 발견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이들 유적은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고유한 도시 건축 형식인 군현 관청들과 주민 거주지가 자리잡고 있는 평지성(평지에 둘러 쌓은 성)과 그것을 보위하기 위한 산성이 결합돼서 하나의 군현 유적을 이루고 있다”고 방송은 설명

■ 북녘도 설맞아 4일간 ‘황금 연휴’ (2/6, 연합)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밝힌 ‘2008년 북측 공휴일 안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음력 설인 7일부터 9일까지를 법정 공휴일,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6회 생일 연휴(2.16~17)나 고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을 기념한 ‘태양절’ 연휴(4.15~16)보다 하루 많은 것이며, 10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 주민들은 남한보다 하루 적은 4일 연휴를 즐길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민속 명절’이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해 오다 1988년 추석을 시작으로 부활시켰으며, 2003년부터는 ‘민족 전통’을 강조하는 정책에 따라 음력 설은 ‘설 명절’이라고 부르며 3일간

쉬도록 하고 있음. 북한에서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 민속 명절은 설과 정월대보름, 추석 등임.

■ 北백두산 기후, 건강에 좋다(2/5, 노동신문)

- 백두산 직항로 관광 개시를 석달가량 앞둔 가운데 북한이 “백두산의 기후가 건강에 좋다”고 적극 홍보, 신문은 “백두산 지대는 우선 다른 지대에 비해 기압과 기온이 낮으며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록 공기중 습기량이 적어 지는데, 고산지대에서 기압이 낮으면 산소 분압이 떨어지고, 따라서 호흡기능과 심장기능이 강화된다”고 설명

■ 평양서 국제 피겨축전 개최(2/5, 조선중앙통신)

- 제17차 백두산상 국제 피겨축전이 15일부터 3일 동안 평양에서 개최, 중앙통신은 북한 빙상협회 빙상피겨 김준집 부서기장의 말을 인용, “이번 축전에는 세계휘거(피겨) 선수권 대회와 겨울철 올림픽경기 대회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준 선수들을 포함하여 근 10개 나라의 선수들이 참가하게 된다”고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힐 차관보, 北 핵 신고 별다른 진전 없어(2/7, 뉴시스)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 핵신고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6일(현지시간) 밝힘.
- 힐 차관보는 6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핵신고는 북핵 협상 진전의 방해가 되고 있으며 북핵 2단계 합의 중 불능화 부분은 대부분 이뤄졌지만 우라늄 핵프로그램과 핵확산 활동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북핵 합의 이행이 이뤄진 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

나. 북·미 관계

- 北, 이라크 문제 해결책은 미군 철수뿐(2/10,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노동신문은 ‘이라크에서 군사적 해결책은 통하지 않는다’ 제목의 글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이라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뿐이라고 주장

다. 북·러 관계

- 러시아, 김정일에게 훈장 수여(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위원장의 66회 생일을 맞아 러시아 연방 안전·국방 및 법질서문제 과학원에서 최고훈장인 ‘드미트리 돈스코이’ 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훈장을 전달하는 의식은 2월 5일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진행

라. 기타 외교 관계

- 北김영남, 새해 축전 발송(2/7, 조선중앙방송)
 - 새해를 맞아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바레인과 노르웨이 국왕, 루마니아, 헝가리, 모리타니아, 수단 등의 대통령이 각각 축전과 연하장을 보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인도, 北에 식량 지원(2/5, 조선중앙통신)
 - 인도 정부가 5일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인도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식량을 기증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식량 종류와 수량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5일 북한 남포항에서는 질레 싱 북한주재 인도대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
 - ※ 인도 정부는 2006년 2월에도 북한에 쌀 2천톤을 무상 지원했으며 1995년부터 2006년까지 9회에 걸쳐 식량과 의약품 등 물자를 북한에 지원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北, 南에 주적 개념 폐기 촉구(2/4, 평양방송)

- 남한이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은 “외세와 공조를 절대시하고 북남 사이 불신의 감정만 야기하는 반통일적이며 매국배족적인 관점”이라고 북한의 평양방송은 주장하고 “시대착오적 주적론”을 폐기할 것을 요구
- 방송은 “남조선(남한)에서 동족을 적대시하는 남은 대결시대의 관념을 털어버리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없고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며 주적론이 “군사적 긴장을 부채질하고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에 화박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주장
- 방송은 남한의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했지만 “그것은 남조선 군부가 동족을 더 이상 주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그들은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은 직접적이고 가장 주요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쫓아박았다(새겨 넣었다)”고 비난

나. 남북 교류

■ 올해 반입량 제한 北농산물에 호박 추가(2/8, 연합)

- 2008년 연간 반입 물량이 제한되는 북한산 농수산물 품목에 호박이 추가, 통일부는 8일 국내 생산량과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2008년도 북한산 농수산물 중 연간 반입량 한도 품목에 호박을 포함시켰다고 발표, 통일부 관계자는 “호박의 경우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우려가 있어 반입량 제한이 필요하다는 농림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언
- ※ 반입량 제한 품목은 꽃게, 붉은 대게, 새우 및 보리새우, 가리비, 오징어(냉동·신선), 낙지(냉동), 건명태(북어류), 들깨, 당면, 땅콩조제품, 고추제품류(고추장 등), 참깨분, 메주, 호두, 표고버섯, 녹두, 팥, 대두, 참깨를 포함해 20개

■ 남북, 금강산관리위원회, ‘빠른 시일 내’ 설치 합의(2/6, 연합)

- 남북은 5일 금강산 관광지구 관리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한다는 데 합의, 남북은 5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활성화 관련 실무접촉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통일부가 발표
- 금강산 관리위원회는 금강산 관광지구 투자 기업들의 창설승인, 등록·영업허가 등 행정업무와 소방·안전 관리 및 현지 기반시설 관리 등을 담당
- 양측은 또 금강산 통행검사소 건설 등 기반시설 관련 문제도 빠른 시일 안에 원만히 해결키로 합의, 이번 접촉에는 우리 측에서 정동문 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장 등 3명의 대표가, 북 측은 강용철 아태평화위원회 참사 등 3명이 대표로 참석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Review

2.11-2.17

2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오중흡 7련대 칭호’를 받은 인민군 제776군부대 관하 대대들 시찰 (2/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중흡 7련대 칭호’를 받은 인민군 제776군부대 관하 대대들을 시찰, 화력 훈련을 지켜보고 교양실, 침실, 식당, 세면장, 부식물 창고, 토끼 사육장 등을 둘러본 뒤 병사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
- 현철해, 리명수 대장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체육지도위원장에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학선 임명 확인(2/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제17차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개막 소식을 전하면서 “박학선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아 박학선이 체육지도부위원장에서 위원장으로 승진 임명된 것으로 파악됨.
- 박학선은 1985년 청년조직인 사회주의노동청년연맹 중앙위원회 체육부 부장을 지냈고 2006년부터는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 김정일 생일 ‘축제’ 행사 개최 활발(2/12, 연합)

- 지난 6일 ‘2·16경축 제2차 전국소묘축전’과 ‘2·16경축 영화상영 순간(旬間)’이 동시 개막
- 제12차 김정일화(花) 축전이 13일부터 20일까지 평양 ‘김일성화 김정일화 전시관’에서 개최
- 14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제16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 개막
- 제17차 백두산상 국제 피겨축전이 15일부터 17일까지는 체육지도위원회 주최로 평양에서 개최되어 10여개 국가 선수들 참가 예정

■ 김정일, '2012년 강성대국 달성' 강조(2/14, 조선신보)

- 김 위원장이 2007년 현지지도를 계속하던 중 “조국이 고난의 길로부터 낙원의 길로 들어섰으며 강성대국으로 최후 돌격전을 위한 시기가 성숙했음을 통찰”하고 “2012년을 향한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했으며,
- “2008년을 흥하는 해, 비약하는 해가 되게 하자”, “우리 모두 일을 많이 하고 공화국(북) 창건 60돌을 맞는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새해의 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한 것으로 보도됨.

다. 경제 관련

■ 신발공장 사무원, 생산라인으로 돌려(2/11,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은 우선 경공업에 필요한 생산인력 확보를 위해 공장과 기업소에 대한 직무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평양구두공장 리동찬 지배인에 따르면 “그동안 공장에는 사무원과 연구 및 자재관리, 운송 등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인원이 종업원의 25%에 달했으나 2007년 10월부터 이들을 높은 기능이 요구되지 않는 직장에 배치”하였으며,
- 이에 따라 사무원의 경우에 오전에는 사무업무를, 오후에는 생산라인에서 직접 생산에 참여

라. 사회·문화 관련

■ 김정일 생일연휴 뱀장어요리 공급(2/14, 조선중앙TV)

- 평양시내 식당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6회 생일 연휴인 16~17일 뱀장어 요리를 공급할 계획이며,
-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민군 군인들이 수도(평양)의 급양봉사망(식당)들에 많은 양의 뱀장어를 보냈다”고 소개

■ 북한에서도 과외단속(111호, 오늘의 북한)

- 북한에서도 과외금지령이 내려졌던 80년대 초반의 남한에서와 같이 당국의 과외단속과 몰래과외간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으며,
- 과외 단속은 평양보다는 지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일, 재일동포 학생예술단 위해 연회 개최(2/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맞이 모임'에 참가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해 11일 연회를 마련
-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마련한 연회에 김정일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며 김중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유호 해외동포사업국장이 참석

■ 노동신문, '뉴욕필' 소개(2/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뉴욕필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향악단" 중 하나로 소개
- '역사가 오랜 교향악단들'이라는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뉴욕필을 '뉴욕교향악단'이라고 부르며 오스트리아 빈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을 포함해 세계 3대 교향악단의 역사와 특징 등을 소개

■ 아동 만화 · 인형영화 제작 활발(2/11, 평양방송)

- 북한의 대표적 애니메이션 제작소인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에서 아동용 만화 및 인형 영화를 다수 제작중이라고 보도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달리위조' 설 대미 반박(2/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가 2월 9일자에서 북한의 "달리위조설을 유포시키고 있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고 보도, 독일신문은 "미국이 '화폐위조설'의 유력한 증인으로 내세웠던 '북조선 도주자'는 사기협잡꾼이고 그나마 행방불명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 아울러 독일신문은 현재의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달리위조설을 유포시킨 기본 목적은 "경제봉쇄로 우리 공화국(북한)을 굴복시키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임.

■ 김영남, 美 이중적 태도 비난(2/16, 조선중앙TV)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6회 생일을 기념한 ‘경축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미국이 “우리 공화국(북한)을 압살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면서 회유와 압력의 양면술책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의연히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
-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을 지목, “6자회담 막 뒤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무모한 무력 현대화 계획을 계속 다그치”고 있다고 비난

■ 시대흐름 맞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환 요구(1/13, 평양방송)

- ‘미국의 대조선 정책을 끝장내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전쟁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발전이 현시대의 기본 흐름으로 되고 있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립과 분쟁을 끝장내고 화해와 선린우호의 길로 나가고 있다”며,
- “미국은 이러한 정세발전과 세계의 변화를 외면하지 말고 대세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

■ 리비아 · 그레그 전 대사, 방북(2/13, 연합)

- 에번스 리비아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 등이 2월 25일 판문점을 통해 평양을 방문, 리비아 회장과 그레그 전 대사는 2월 26일 평양에서 열리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에 참석할 예정

■ 北, 핵확산 의혹은 10·3합의 비확산 공약으로 이미 해결(2/12, 조선신보)

- 핵신고 관련 북미간 핵심쟁점인 북한과 시리아간 핵협력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 “10·3 합의문건에 핵무기와 기술, 지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명문화”한 것으로 “사실상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강조

나. 북·중 관계

- ‘훈춘-라선 일체화’ 북중 경협이제로 상정(2/14, 훈춘시 인민정부 웹사이트)
 - 중국 훈춘(琿春)과 북한의 라선시를 도로로 연결하고 라진항에 공단 및 보세구역을 건설하는 이른바 ‘훈춘-라선 일체화’ 계획이 북중 양국의 경협이제로 상정
 - ‘중조 노항구(路港區) 일체화 계획’ 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2007년 9월 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차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의제로 상정됐으며 현재 중국 상무부에서 자료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다. 기타 외교 관계

- 몽골 ‘협’ 유한책임회사 총사장 일행 방북(2/14, 조선중앙통신)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몽골 ‘협’ 유한책임회사 총사장 일행과 담화
- 北·쿠바, 친선협조 강화(2/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호세 몬타노 쿠바 대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16)에 즈음해 13일 대사관에서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을 초대해 연회를 개최
 - 연회에는 최 비서와 함께 김용진 교육상, 김병팔 직업총동맹 중앙위원장, 강창욱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장,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장 대리 등이 초대됨.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승례문 소실, 정권출범 전 불길한 징조”로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소개 (2/1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승례문 소실을 두고 “새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 이런 엄청난 사태

- (화재)가 발생한 것을 두고 ‘불길한 징조’라는 소리가 떠돌고 있다”고 보도
-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시장 때 송례문을 개방하고 경비를 허술하게 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성금으로 송례문을 복원하자’고 무책임한 호소를 한 것이 여론의 강한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도

나. 남북 교류

■ 이재정 통일부 장관, 1월말 리종혁 北아태위부위원장과 면담(2/14, 연합)

-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1월 말 개성공단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대남 사업 관련 고위 인사인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
- 리 부위원장은 1월 24일 이 장관이 타 부처 장관들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했을 때 북측 출입사무소(CIQ)로 영접을 나오는데 이어 다른 인사들이 공단을 둘러보는 동안 이 장관과 따로 면담한 것으로 알려짐.

■ 北에 묘목 양묘장 7개 추가조성 추진(2/14, 연합)

- 16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겨레의 숲’은 14일 제2차 정기총회를 열어 황폐한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2011년까지 북한에 총 7개의 묘목 양묘장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으며,
- 현재 평양(10ha), 금강산(3ha), 개풍(6ha)에 양묘장을 조성·운영중인 이 단체는 양묘장 7개를 추가 조성할 경우, 모두 10개 양묘장에서 매년 5천ha의 민둥산을 녹화시킬 수 있는 양인 1천500만본의 묘목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북한 레슬링팀, 제주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 예정(2/14, 조선일보)

- 북한 레슬링대표팀이 3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예정
- ※ 북한 레슬링 팀의 방한은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이후 6년 만이며, 한국에서 열리는 단일 레슬링대회 참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구체적 합의 없이 종결(2/13, 연합)

- 남북은 13일 개성에서 도로협력분과위원회 이틀째 회의를 갖고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를 협의했지만 사업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에 실패

- 남북은 2007년 12월 두차례 실시한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식 개보수 착수에 앞선 정밀 안전진단 문제, 공사범위와 방법 등을 협의했지만 입장차로 합의문이 아닌 공동 보도문을 채택하고 회의를 마무리

■ 남북, '겨레말큰사전' 3월 집필 시작(2/13, 연합)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남측 편찬위원회 2기 위원장에 선출된 권재일 서울대 교수는 13일 '겨레말큰사전' 집필을 3월부터 남북이 함께 시작해 2011년까지 기본적인 집필작업을 끝내겠다고 밝힘.

■ 해외동포의 월드컵 남북 예선전 응원 허용(2/13, 조선신보)

- 3월 26일 평양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 남북한전에 해외동포의 응원을 허용한 반면,
- 2월 5일 개성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경기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측이 제안한 1천명 규모의 응원단을 보내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짐.

■ 평양 2010 남아공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 3차 예선시 태극기, 애국가 응원단 불허(2/13, 조선일보)

- 3월 26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2010 남아공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 3차 예선 한국과 북한 경기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북한측이 "공화국 역사상 태극기가 하늘에 나부끼고 애국가가 울린 적이 없다"며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 한국응원단 방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임.

■ 키컴, 개성공단에 전자팩스 설치(2/11, 연합)

- 기업정보화솔루션 전문기업 키컴은 자사의 팩스문서관리시스템일체형 제품인 '명인전자팩스 F-BOX(에프-박스)'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개성공업지구 기술교육센터에 설치했다고 11일 밝힘.

■ 남·북 첫 공동 문예지 '통일문학' 북한에서 인쇄(2/11, 연합뉴스)

- 남·북한 문인들이 함께 만든 첫 공동 문예지 '통일문학' 이 2월 5일 북한에서 인쇄
- 창간호는 5,000권을 찍었으며,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개성에서 육로를 거쳐 2,000부가 남측에 전달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Review

2.18-2.24

2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경제 관련
- 나.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일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경제 관련

■ 양보다 질 향상 위주의 생산 강조(2/22, 조선신보)

- “사람들이 아무거나 입는 시대는 지나갔다. 제품의 질이 보장되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라는 강서편직공장(속옷공장)의 리혜철(49) 지배인의 말을 인용, 양보다 질의 향상을 강조하는 상품생산 독려

■ ‘소비자 취향’을 강조한 기술혁신 요구(2/20, 조선신보)

- 평양화장품공장의 경우, 기술혁신을 위해 “우선 화장품을 쓰고 사는 인민의 요구를 청취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며,
- “그것을 실리를 얻기 위한 활동의 기준점으로 삼고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갔다”고 소개

■ 군대 외화벌이 통제(112호, 오늘의 북한소식)

- '07년 연말, 군부대 명칭으로 된 무역 회사들과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무역회사들을 일체 재정리하라는 방침이 12월 23일 있었으며,
- 지난 2월 1일 모든 군부대들에서 군부 출장소와 군부 산하 외화벌이 회사를 없애고 강성(건설한) 무역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기구를 줄여야 하며,
- 지방에서는 군부보다 당 기관을 우선 내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문을 각 도(道)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짐.

나. 사회·문화 관련

■ 남북 여자축구, 북한승리에 대한 신속한 보도(2/24, 조선중앙방송)

- 중국 충칭시에서 열린 2008 동아시아축구대회 여자부 풀리그 최종전에서 북한 대표팀이 남한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

■ 강성대국 위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체육활동 강조(2/23, 노동신문)

- “대중체육사업은...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정치사업”

이며,

- “체육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사업”임을 강조

■ **고려 학자 이제현 묘지석 발굴 보도(2/22, 평양방송)**

- 황해북도 장풍군 십탄리 서원동에 있는 고려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익재 이제현(1287~1367)의 무덤에서 묘지석을 새로 발굴했다고 보도

■ **북한 김금옥, 아시아 마라톤 우승 보도(2/19, 조선중앙TV)**

- 여자 마라토너 김금옥이 2월 17일 중국 홍콩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마라톤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보도

■ **함북인민병원, 무균화로 항생제 없이 수술(2/19, 조선신보)**

- 함경북도인민병원이 수술실을 외부와 차단시키고 무균화 방법으로 최근 6개월간 70여명의 환자를 항생제 없이 수술·완치시켰다고 보도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뉴욕필 평양공연 여러 매체 예고 보도(2/22,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조선신보)**

-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조선신보가 22일 미국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공연 사실을 공식 보도

■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비난 및 경고(2/20, 조선중앙방송)**

-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해 ‘북침전쟁연습’이라 비난하고,
- “도발에 강력한 보복으로 대답하고, 불은 불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며 대응방식”이라고 경고

나. 북·중 관계

■ 저우언라이 방북 50주년 기념행사 개최(2/18, 연합)

- 북한이 18일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의 방북 5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기념집회와 영화 감상회를 개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다. 북·일 관계

■ 대북 ‘편지풍선’ 계획 일본단체에 대한 비난 강화(2/20, 조선중앙통신)

- 일본의 민간단체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가 북한에 있는 납치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풍선 등을 통해 북한에 들여보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북한) 음모”라고 비난

■ 이시하라 망언에 대한 규탄(2/20, 조선중앙통신)

- 일제의 침략전쟁이 식민국가들을 해방시켰다는 일본 극우정객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도쿄도지사의 망언과 관련, “우리 인민과 아시아나라 인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규탄

■ 6자회담에서 일본 제외 주장(2/19, 민주조선)

- 일본이 한반도 핵문제와 같은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룰 정치적 능력이 없다며 스스로 회담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

라. 북·러 관계

■ ‘조국수호자의 날’ 기념 연회 개최(2/23, 조선중앙통신)

- ‘조국수호자의 날’을 맞아 월레리 수히닌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가 22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개최했으며,
- 이날 연회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참석

■ 김영춘, 러시아와 친선발전 입장 일관(2/21, 평양방송)

-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연회에 참

석, “전통적인 조(북)·러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염원과 이익에 부합되며 조·러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강조

마. 기타 외교 관계

■ 팔레스타인 대사, 김정일 생일 축하 연회 개최(2/24, 조선중앙통신)

- 마하마드 조로브 북한주재 팔레스타인 대사가 23일 대사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6회 생일(2.16)을 기념하는 연회를 개최
- 연회에는 박의춘 외무상과 최창식 보건상, 김병팔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 등이 참석

■ 몽골 농업·식료·자연환경부문 근로자동맹 대표단 방북일정 마친 후 23일 귀국(2/23, 평양방송)

■ 쿠바와 관계발전 노력 지속 강조(2/23, 조선중앙통신)

- “최근 피델 카스트로 동지는 쿠바 공화국 국가이사회 위원장과 무려 최고 사령관의 직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면서
- “우리 인민은 피델 카스트로 동지를 가장 친근한 전우로, 동지로 여기고 있으며 형제적 쿠바 인민과 친선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3) 대남정세

■ 통일부, 뉴욕필 공연 관련 101명 방북 승인(2/24, 연합)

- 통일부는 26일로 예정된 뉴욕필의 평양공연을 취재하거나 관람할 인사 101명에 대해 방북을 승인했다고 24일 발표

■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출범(2/22, 연합)

- 인천·경기지역 각계 인사로 구성된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는 22일 오후

인천 수림공원(음식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 남북 문학교류 난기류(2/22, 연합)

- 남북 문학 교류의 첫 열매인 남북 공동의 문학잡지 '통일문학' 창간호에 대해 통일부가 일부 구절을 문제삼으며 반입 불허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총련 소속 시인들의 입국에 제동이 걸림.

■ 경남, 북한에 거창사과 과수원 조성(2/21, 연합)

- 경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올해는 사과 과수원 조성과 수해복구 주택 복구 지원 등으로 확대
- 올해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벼 및 채소 중심의 농업분야 사업을 병행하면서 거창사과 묘목으로 평양 인근에 과수원(3ha)을 조성하고 수해 피해를 본 주택 10채를 복구, 10월 경남에서 열리는 랍사르 총회 북한대표 참석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이창희 정무부지사가 3월 중 방북, 개성에서 북측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내용을 확정하는 남북합의서를 교환할 예정

■ 북한에 콩·보리재배단지 조성(2/20, 연합)

- 김포시는 5월부터 북한 평양과 개성 중 1곳에 10ha 규모의 콩과 새찰쌀보리 재배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고 20일 발표
- 대북 민간 교류협력사업단체인 '평화3000'의 제의로 이뤄진 이번 사업은 토지와 노동력은 북측, 기술은 김포시가 각각 지원하며 종자 구입비 등의 비용은 '평화3000'이 부담

■ 북핵 불능화 대가 설비자재 2차 지원분 22일 출항(2/19, 통일부)

- 북한의 핵 신고와 불능화의 대가로 남측이 북한에 제공키로 한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의 2차 지원분이 22일부터 해상으로 북측에 전달된다고 통일부가 19일 발표

■ 남북, 보건의료협력 현지조사 19~23일 실시(2/18, 통일부)

- 남북은 19일부터 23일까지 당국 간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북한 현지 실태조

사를 실시한다고 통일부가 18일 발표

- 남북은 2007년 12월 말 열린 '제1차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에서 2008년 1월 중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동안 일정 협의가 지연

■ 대북 경공업 원자재 372만불 상당 20일 출항(2/18, 통일부)

- 통일부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에 따라 북한에 제공키로 한 8천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중 24번째 항차분 배송을 20일 착수한다고 18일 발표

■ 북한, 신정부 남북정상선언 '재검토' 입장 비난(1/26, 주간통일신보)

- 이명박 당선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표현을 직접 인용하며 “온당치 못한 잡소리”라고 맹비난하면서 “10·4선언을 깎아내리고 실천을 훼방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반시대적, 반통일적 망동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Review

2.25-3.2

2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중국 대사관 방문(3/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일 북한 주재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대사의 요청에 따라 중국 대사관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류 대사는 대사관을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인사를 전달하고 자신이 마련한 선물을 전달,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후 주석에게 인사를 전한 다음 류 대사와 “따뜻하고 친선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
- 김 위원장과 함께 김격식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양건 당 부장, 박경선, 지재룡 당 부부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 등이 동행
- ※ 김 위원장의 중국 대사관 방문은 2000년대 들어 모두 4회로, 작년 3월 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고위간부들을 대동하고 중국 대사관을 찾았으며 앞서 2000년 3월과 2001년 7월에도 중국 대사관을 방문

나. 정치 관련

■ 北, 3.1절 맞아 ‘반외세 자주’ 강조(3/1,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북한 언론매체들은 3·1절 89주년을 맞아 “반미·반일 투쟁”과 “민족자주”를 거듭 강조
- 노동신문은 1일 기념사설에서 “89년 전 전국적 범위에서 벌어진 봉기는 우리 민족의 견결한 반외세 자주정신과 영웅적 기개를 과시한 애국적 장거였다”며 “반외세 자주를 떠나서는 조국통일과 민족의 평화번영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
- 신문은 특히 “미·일·남조선(남한) 3각 군사동맹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새로운 군비경쟁과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며 “남조선의 반통일 호전분자들은 외세와 공조하고 동

죽대결을 일삼는다면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차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

- 조선중앙TV는 3·1운동의 전개과정을 소개한 뒤 “3·1 인민봉기는 무장한 원수는 반드시 무장으로 때려부숴야 한다는 귀중한 진리도 가르쳐 줬다”고 주장

■ 北, 뉴욕필 인터뷰로 체제 선전(2/29,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 북한 언론매체들이 2월 26일 평양 공연을 한 뉴욕필 교향악단의 단원과 동행 기자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3일째 내보내 이들이 북한의 교육 제도와 고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을 높게 평가했다고 주장하며 체제 선전에 활용
- 평양방송은 29일 “미국 뉴욕교향악단의 평양방문을 취재하기 위해서 왔던 미국 CBS 방송 기자 마르샤 쿠쿠”가 이 방송 기자와 만나 북한을 “대단히 매력적인 나라”라고 말했다고 보도,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뉴욕교향악단 연주가 오가모모 사토시”가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에서 북한 방송 기자와 만나 북한의 무료교육제를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

다. 경제 관련

■ 北, 안경점이 종합상점으로(3/2, 조선신보)

- 북한 회사들이 안경전문점에서 종합상점으로 변신하거나 백화점이 부대사업으로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등 업종 다각화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조선신보에 따르면 1993년 평양에서 개업한 ‘평양안경상점’이 2005년에는 업종 확대를 통해 ‘고려심청회사’로 발전, 현재는 생필품과 예술품까지 취급하는 ‘종합상점’으로 발돋움했다고 보도
- 고려심청회사는 2007년 말 평양시 모란봉구역 월향동의 2층짜리 건물을 보수해 ‘월향종합상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주업인 ‘안경전문봉사’는 물론 경공업제품 및 식료품 판매와 식당과 편의시설도 운영

■ 北, 교류전력의 직류화 기술보급에 박차(2/28, 조선신보)

- 북한의 평양 인버터(inverter)센터가 2월 ‘전력전자기술전시장’을 개장해 직류 전력을 교류로 변환하는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에 있는 인버터센터는 북한에서 “인버터 기술

보급의 거점”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곳의 연구사와 보급원들은 “인버터 기술에 관한 과학연구 사업과 경제부문에서 제기되는 인버터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도, 또한 이 센터의 전력전자기술전시장에서는 각종 출력의 인버터 제품과 수백종의 인버터 부품은 물론, 다양한 전자제품 부속품을 전시하고 고객 상담실도 운영하고 전시장 기술진은 공장, 기업소의 '주문 봉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

※ 북한에서는 만성적인 에너지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규모 전력 생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인버터 기술 수요가 높은편임. 대규모 화력이나 수력발전소에서는 교류 전력을 생산하지만 태양광이나 메탄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에서는 주로 직류 발전을 함으로 직류 전력을 인버터를 이용하여 교류 전력으로 바꿔야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에 쓸 수 있음.

■ 北, '2·17과학기술돌격대' 생산현장에 9천명 파견(2/17, 민주조선)

- 생산현장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첨병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2월 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가 현재 70여개 생산단위에 9천여명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민주조선이 보도
- '2월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78년 2월 제2차 7개년 경제계획을 수행하는 데 중추 역할을 담당할 17개 생산단위에 과학자·기술자들로 구성된 돌격대를 파견, 조직된 단체로 생산현장의 신기술 개발, 기술 및 공정 개선, 기술교육 등을 지원
- 신문은 '2월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의 활동상황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현재 9천여명의 과학자·기술자들이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 부문을 비롯해 여러 부문의 70여개 단위에 달려나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와 함께 '2월 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에 망라된 국가과학원의 여러 분원, 연구소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컴퓨터(컴퓨터)기술대학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대학 교원들이 전국의 공장과 기업소들에서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과학기술적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고 보도

■ 北, 1975~1989년은 ‘평양 번영기’ (2/27,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는 북한에서 1975~1989년은 “혁명의 수도”인 평양에 현대적인 거리와 대형 건축물이 집중적으로 건설돼 “평양 번영기”를 구가했다며 평양 건설 과정을 소개

■ 北, 올해 첫 내각 전원회의 개최(2/3, 민주조선)

- 북한이 2월 초 김영일 총리 주재로 첫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계획의 완수 문제를 논의했다고 민주조선 최근호(2.3)가 보도
- 회의에서 곽범기 부총리는 올해 경제계획을 완수하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기 위한 관건적 문제, 내각 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이라고 강조하고 고 김일성 주석의 출생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 전투에서부터 총진격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열어 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혔다고 신문은 전언
- 회의에서는 특히 “사회주의 건설의 생명선”이며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으로 일컫는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을 촉구

라. 군사 관련

■ 北, 키리졸브 연습관련 대변인 담화, “비싸게 마련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3/2,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2일 한미 합동 ‘키 리졸브’ 연습과 관련, “미국과 남조선 호적세력들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끝내 실현하려 한다면 조선인민군은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 놓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주동적 대응 타격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라고 발표
- 판문점대표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은 “‘유사시 미 증원군의 효율적 전개’ 방법으로 전쟁을 이른바 승리로 이끌어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할 것을 목적으로 한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의 추종

분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대변인은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 놓은 모든 수단”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담화 말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위력한 억제 수단을 마련해 놓은 것이 얼마나 정당했는가를 실증해 주고 있다”고 덧붙임.

■ 北, 한미연합해병사령부 개칭 비난(3/1, 통일신보; 3/2,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통일신보는 최근 한미연합사령부 예하의 연합해병사령부(CMFC)를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CMCC)로 변경한 것은 “공화국(북한)에 대한 또하나의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
- 통일신보는 이번 변경이 “연합해병사령부를 작전과 전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로 확대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 수행에서 해병대를 선견대, 돌격대로 이용해온 사실을 고려할 때...그들의 북침 전쟁 도발 책동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준다”고 주장

■ 北, 한·미 2월 170여회 대북 공중정탐했다고 주장(2/29, 조선중앙통신)

- 국군과 미군이 2월 들어 170여 회에 걸쳐 북한에 대한 “공중정탐”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주장, 통신은 ‘군사 소식통’을 인용, 북한에 대한 한·미 공중정탐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달 미군과 국군의 공중정탐은 각각 100여 회와 70여 회에 달했으며, 대북 공중정탐에 고공전략정찰기 ‘U-2’, 전략정찰기 ‘RC-135’와 전술정찰기인 ‘RF-4C’, ‘RC-12’, ‘RC-800’ 등이 이용되었다고 주장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부르주아 가석방제도는 반동·기만적(2007년 겨울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 자본주의 사회의 가석방 제도는 “근로 인민대중에 대한 형사적 탄압을 강화하고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 보호하는 데 적극 이용되며 부르주아(부르주아) 독재의 반동적 본질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는 반동적인 형벌제도”라고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학보'가 주장

※ 북한에도 가석방 제도가 있으며 2004년 5월 개정된 북한의 형사소송법엔 '만기전 석방제도'가 명문화돼 있음. 제432조(만기전 석방의 사유)는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을 받고 형벌 집행중에 있는 자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을 개준(개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교양개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만기 전에 석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은 15년, 유기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에 한다”고 명시

■ 北김일성대, '대동지지' 국역본 발간(3/2, 조선신보)

-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에서 조선후기 김정호의 지리지 '대동지지(大東地志)'를 국역해 2권으로 편집했다고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보도,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민족의 귀중한 유산을 발굴 정리하고 널리 소개해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의 뛰어난 슬기와 재능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의 저명한 학자들로 “번역집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해 국역이 이뤄졌다고 보도

■ 김정일 지시로 전역서 아침체조(3/1, 민족통신)

-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아침 울동체조에 참여하고 있다고 재미동포 온라인 매체인 민족통신이 보도, 민족통신은 평양 해방산호텔 종업원의 말을 인용, “수요일과 토요일 빼고 매일 아침 근무시작 전 15분 가량 울동체조를 한다”며 이 체조는 김 위원장이 2007년 12월 “지침”을 내려 전역의 직장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전언

- 이 종업원은 또 “수요일은 자기 과와 관련한 학습을 하고 토요일에는 정치 사상교양 학습을 한다”면서 ‘수요학습’과 ‘토요학습’은 한 시간씩 이뤄진다고 설명, 민족통신은 북한 주민들이 노년, 중년, 어린이 등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울동의 체조를 선보인다고 덧붙임.

■ 대학 전공교과서 2012년까지 개편(2/25, 노동신문)

- 북한이 오는 2012년까지 대학과 전문학교의 모든 전공과목 교과서와 참고서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개편할 방침이라고 노동신문이 보도

- 출판사의 사회과학편집국은 사회과목 교재내용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기계·광업편집국에서는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등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교재 편집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 금속공업과 관련해서는 ‘직접제철’, ‘합금철야금’ 등의 교재를 새로 출간할 계획이며, 농업편집국은 국토, 축산, 과수, 양어부문과 생물공학 부문의 교재 편찬을, 의학·화학편집국과 기초·전기편집국에서도 ‘옷본보기’, ‘컴퓨터(컴퓨터)망 보안체계’, ‘21세기 에너지 이용 기술’ 등의 과학기술 도서를 출판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신문은 소개
- 출판사에서는 “공장대학들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신문은 언급

■ 北수증발레팀,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총력(2/28, 조선신보)

■ 北당국, 농장원 식량부족 실태 조사(113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당국이 2월 들어 전국 농장원들의 식량부족 실태를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지난해 파종기 때의 가뭄과 잇따른 홍수 피해로 인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최소 소요량 520만톤에 비해 120만~140만톤 부족한 380만~400만톤으로 추산
- 소식지는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도 배급이 일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2월초 현재 배천, 룡연, 웅진군의 쌀값이 1kg당 북한돈 1천300원대, 옥수수는 1kg당 720원에 달한다고 전언

■ 北클래식, 날로 세계화(2/27, 조선신보)

- 평양에서 2월 초 열린 설 경축 음악회에서 드레스 차림의 소프라노 성악가들이 무대에 오르는 등 북한의 클래식 무대 매너와 공연 수준이 날로 세계화하고 있다고 보도

■ 北, 中동북공정 강력 비판(2007년 2호, 력사과학)

- 북한의 계간 ‘력사과학’ (2007.2호)에 따르면 리광희 박사는 ‘고구려의 왕호에 대한 몇 가지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고구려 군주의 칭호인 왕

이라는 표현이 고구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징표의 하나"라며 고구려의 왕은 중국 황제의 제후라는 주장을 논파, "고구려는 고조선의 계승국이며 당시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주권국가였다"며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정면 논박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북·미, '비밀신고' vs '분리신고' 기싸움(3/2, 연합)

-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발표 예상시점이 4월말인 점을 감안, 양측이 3월 중순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막판 살바싸움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
-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소식통들은 2일 미국은 현재 '완전하고 충분한 핵신고'를 내용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북한이 민감해하는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과 핵 확산 활동 부분에 대한 '비밀신고'를 허용키로 하는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 이에 대해 북한측도 '비타협적 자세'에서 벗어나 ▲플루토늄 추출 내역에 대한 신고및 검증을 보장하는 대신 ▲우라늄 농축 문제는 일단 놔두고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한 뒤 추후 논의하며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위한 의회 통보 등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최근 잇따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하는 것도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측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의장국 중국과의 대북 설득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라고 한 대북소식통은 설명
- 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힐 차관보가 1일 다시 베이징에 도착했지만 김계관 부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미국측 안에 대한 북한 내부의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

■ 北, 6자회담 빨리 타결되도록 하자(2/26, 연합)

- 송석환 북한 문화성 부상 겸 조선예술교류협회 회장은 26일 미국에 대해 “6자회담이 빨리 타결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힘.

나. 북·미 관계

■ 北, 뉴욕필 공연보게 직장·학교 조퇴(2/28, 민족통신)

- 뉴욕필 교향악단의 평양공연이 열린 26일 북한 당국은 대부분의 직장과 유치원을 포함해 모든 학교들에서 1시간 일찍 조퇴를 시켜 오후 6시부터 TV를 통해 생중계된 공연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짐.
- 재미동포 온라인 매체인 민족통신은 방북한 특파원의 평양발 기사에서 이곳 한 예술계 여성은 이번 공연이 “문화교류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큰 것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을 미치갱이(미치광이)로 생각해왔지만 미국의 1류 교향악단이 우리 공화국(북한)에 와서 우리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것도 감격”했다고 말하고 “두 나라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아리랑’ 이 하늘에 울릴 때는 통일조국의 서막이 열리는 기분을 가졌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전언

■ 北어린이들, 뉴욕필에 ‘징글벨’ 노래 선물(2/28, 조선신보)

- 미국 어린이는 北에 작곡 선물, 북한 어린이는 뉴욕필에 노래 선물
- 북한 최고의 어린이 예술단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어린이들이 27일 북한 국립교향악단과의 협연에 참가하지 않은 뉴욕필하모닉 단원들에게 ‘징글벨’ 과 ‘클레멘타인’ 등 미국인들의 귀에 익은 노래를 깜짝 선물
- 한편 이날 북한의 국립교향악단과 실내악 협연을 가진 뉴욕필은 미국 초등학생이 작곡한 실내악곡 3곡을 선물, 특히 방글라데시계 미국 소녀인 사라 타스밀라(12)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작곡한 ‘고요함(SERENITY)’은 양 교향악단이 협연해 북한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음.

■ 北언론, 뉴욕필 협연 보도(2/2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국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북한의 국립교향악단과 협연한 소식을 짙막하게 보도,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뉴욕필의 평양 도착부터 같은 날 환영 연회, 26일 동평양대극장 공연 소식을 잇달아 보도

■ 北, 美 첩보위성 요격은 ‘군사패권주의’ 비난(2/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미 해군이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해상요격용 미사일을 발사해 고장난 첩보위성을 요격하는 것은 “우주에서 군사적 패권을 쥐자는 것”이라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은 ‘우주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위험한 행위’ 제하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첩보위성 요격 사실을 전하고 “관측통들은 이것이 미사일방위 체계 개발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는 중대한 계기로서, 미사일방위 체계 수립을 위한 실전의 시험이었다고 평하면서 위성요격 이유와 관련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고 강조

다. 기타 외교 관계

■ 北·獨 수교 7주년 기념 사진전 개최(2/29, 평양방송)

- 북한이 독일과 수교 7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시회를 28일 평양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열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북한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북·독친선협회, 북한 주재 독일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이 전시회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독일의 각종 건축물들이 소개됐으며, 토머스 쉐퍼 독일 대사와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개막식에 참석
- 2월 27일 쉐퍼 대사는 대사관에서 공석웅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장 등을 초청해 수교 기념 연회를 개최
- ※ 북한과 독일은 2001년 3월 1일 수교

■ 런던 北대사관, 에릭클랩튼 내년 초쯤 평양 갈 것(2/26, 연합)

- 영국의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은 내년 초 일본 공연에 맞춰 북한 평양에서 콘서트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런던 주재 북한대사관이 26일 발표
- 클랩튼 공연에 앞선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영국 공연은 영국의 성악가 수잔나 클라크의 주선으로 추진 중, 클라크는 서방예술가로는 이례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작년 4월 고 김일성 주석 생일 기념 친선예술축전에 참석한 바 있음.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범청학련 北본부, 南의장 체포 비난(3/1, 연합)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북측본부는 3월 1일 성명을 내고 남한 경찰이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를 체포한 것은 “동족 사이에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는 용납못할 반인권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라고 비난
- 북측본부는 성명에서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이 벌인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범죄로 될 수 없다”며 “6·15 시대에 파쇼적인 보안법을 휘둘러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탄압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사의 흐름을 불신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려 세우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 아닐수 없다”고 주장

■ 북, 남북관계서 이념없는 실용주의는 위험(2/29, 조선신보)

-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구상’은 “비현실적이며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조선신보가 주장
- 조선신보는 29일 ‘이념과 실용주의는 대치관계에 있지 않다’는 제목의 시론에서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비핵·개방·3000구상’이 고작이다”며 “핵포기와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마치 김영삼 정권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고 언급, 또 신문은 “개방하라느니, 10년안으로 북 주민의 소득을 3천 달러로 올려주겠다느니 하는 얘기도 너무도 북을 모르는 소리이며 또 같은 민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남관계에서도 이념보다 실용주의를 강조했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이념이 없는 실용주의는 큰 위험성을 띠고 있음을 절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며 “북측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래 이 대통령에 대해 침묵하는 배경을 시사

나. 남북 교류

■ 남북협회, 전략물자관리원과 업무협약(2/28, 연합)

- 남북간의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사업을 대행하는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이하 남북협회)는 전략물자관리원과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발표
- 남북협회는 대북 제공 물자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에 걸리는지 여부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27일 전략물자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소개
- ※ 남북협회는 경공업 원자재를 북에 제공하고 지하자원으로 상환받는 남북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사업을 위한 이행기구로, 2007년 5월 출범

■ 통일 대비 벼 품종 ‘평원’ 육성(2/28, 연합)

-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은 통일에 대비, 북한에서 재배가 가능한 신품종 벼 ‘평원’을 육성했다고 28일 발표, 이번에 육성된 평원은 대표적인 북한 벼 품종인 ‘삼지연4호’를 개량한 것으로 삼지연4호의 추위에 대한 저항성인 내냉성(耐冷性)을 지니고 있으면서 미질이 나쁜 단점을 개량한 품종

북한 1·2월 동향 일지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1월 01일	“2008신년공동사설 발표” 2012년 강성대국달성을 목표로 올해에 경제 분야에서 역사적 전환 강조	○중방, 중통, 중앙TV(1/1)
01월 02일	새해를 맞아 비핵화 의지 재천명	○조선신보(1/2)
01월 03일	신년공동사설 과업 관철 호소 노동신문 사설게재 경공업성 부상 허택권 조선신보와 신년 인터뷰-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투자 강조	○노동신문(1/3) ○조선신보(1/3)
01월 04일	미국에 행동 대 행동 원칙 준수 재촉구 신년공동사설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민주조선(1/4), 외무성대변인 담화(1/4) ○중방(1/4)
01월 05일		
01월 06일	김정일- 예성강발전소 건설장 시찰	○중방(1/6)
01월 07일	외무성, 주북 중국대사관과 새해 친선모임	○중방(1/8)
01월 08일	김정일-제776군부대 및 구분대 시찰 보도 조선우표사, ‘새날’ 신문창간 80돌 기념우표 창작 발표	○중방(1/8) ○중앙TV(1/8)
01월 09일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 전집’ 제73권 출판	○중방(1/9)
01월 10일	주중 북한대사관, 중국 대외사업일꾼 초청 새해 연회 개최	○중방(1/12)
01월 11일		
01월 12일		
01월 13일		
01월 14일	‘새날’ 신문 창간 8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김중린 보고	○중방(1/14)
01월 15일	당중앙위, 류사오밍 주북 중 대사 및 직원들 초청 연회 개최	○중방(1/15)
01월 16일	2.16경축 제2차 전국소묘축전 선전화들 발표	○중앙TV(1/16)
01월 17일		
01월 18일	중국 당 대외 연락부, 주중 북한대사관원들과 친선모임 주북 러시아대사관, 당중앙위 일꾼들과 친선모임	○평방(1/19) ○평방(1/19)
01월 19일	김용삼 철도상 일행, 중국 방문(1/19-22)	○평방(1/19), 중방(1/24)
01월 20일	조선우표사, 공동사설 반영 우표 7종 제작	○평방(1/20)
01월 21일		
01월 22일		
01월 23일		
01월 24일		
01월 25일		
01월 26일	김정일-강계담공장, 돼지공장 현지지도	○중방(1/26)
01월 27일	김정일-장강 버섯, 식료공장, 토끼종축장 현지지도	○중방(1/27)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1월 28일	직업총동맹 중앙위 제60차 전원회의 개최	○중통(1/28)
	김영남,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전대통령 사망관련 조전 발송	○평양(1/28)
01월 29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37차 전원회의 개최	○중방(1/31)
	청년동맹대표단(김철혁 비서), 세계 민주청년연맹 총이사회 참가자 포르투갈 항발	○중방(1/29)
	몽골 경제대표단, 방북 후 귀국(1/29-2/2)	○중방(1/29), ○중방(2/2)
	프랑스 외무성대표단, 방북 후 귀국(1/29-2/2)	○중방(2/3)
01월 30일	중, 공산당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방북	○중방(1/29)
	김정일- '3월 5일 청년광산' 현지지도	○중방(1/30)
	김정일-중,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면담	○중방(1/30)
01월 31일	농근맹, 제55차 전원회의 개최	○중방(1/31)
	김정일-중 후진타오 주석에게 최근 폭설피해 위로전문 발송	○중통(2/1)
02월 01일	6자회담 북미실무접촉, 평양에서 진행(1/31-2/2)	○중통(2/2)
02월 01일	김정일-제375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중방(2/1)
02월 02일	조선그리스도연맹 대표단(강영섭위원장), 독일항발	○중방(2/2)
02월 03일		
02월 04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에 여춘석 임명 확인	○중방(2/4)
02월 05일	김정일 66회 생일 기념 기념우표 2종 발행	○중방(2/5)
	인도정부, 남포항에서 식량 기증의식 진행	○중앙TV(2/5)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그리스도교 국제토론회(독일, 프랑크푸르트) 각국 기독교대표 110여명 참가, 성명채택(2/5-8)	○중방(2/24)
02월 06일	영화상영공간 및 전국소묘축전 개막	○중방(2/6)
	백두산상 국제취겨축전, 중앙기관일꾼 체육대회 개최	○중방(2/6)
02월 07일	김정일-평양시 급양봉사망에 썩고기 공급 지시	○중방(2/7)
02월 08일		
02월 09일		
02월 10일		
02월 11일	설맞이 모임 참가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 개최	○중통(2/11)
	주북 이란대사, 이란혁명 29돌 즈음 고려호텔 연회 개최	○중방(2/12)
02월 12일	'김정일화' 명명 20주년 중앙보고회 개최	○중방(2/12)
	내각 체육지도위원장, 박학선 임명 확인	○중방(2/12)
	북·쿠바, '2008-2010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중방(2/12)
	몽골, 자주적 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대표단 평양도착	○중방(2/12)
02월 13일	2,16경축 평양시 청소년들의 경축무대 개최	○평양(2/13)
	제12차 김정일화 축전 개막(2/13-20)	○중방(2/13)

북한 1·2월 동향 일지

일시	내용	보도일자
02월 14일	2,16관련 16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 개막	○중방(2/14)
	외무성, 2,16즈음 주조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과 친선모임 개최	○중방(2/14)
02월 15일	김정일-제776부대 관하 대대 시찰	○중방(2/12)
02월 16일	2,16경축관련 수중발레공연 개최	○중방(2/16)
	2,16경축음악회 개최	○중방(2/17)
02월 17일	2,16경축관련 전국소년단전국연합단체 개최	○중방(2/17)
	몽골농업식료자연환경부문 근로자동맹 대표단 방북	○중방(2/17)
02월 18일	김일성-주은래의 태암협동농장 방문 50돌 기념집회 개최	○중방(2/18)
02월 19일		
02월 20일	주북이란대사, 김정일 생일즈음 대사관 연회 개최	○중방(2/19)
02월 21일		
02월 22일		
02월 23일	외무성대변인, 쿠바 카스트로의 건강악화 관련 기자회견	○중통(2/23)
02월 24일	뉴욕필공연, 동평양대극장 리모델링	○중방(2/24)
02월 25일	송석환 문화성 부상, 미뉴욕필 평양공항 영접	○중방(2/25)
	문화성-조선예술교류협회, 미 뉴욕필 위한 연회 개최	○중방(2/25)
	김정일·김영남, 쿠바 라울카스트로 내각수상 축전발송	○중방(2/25)
02월 26일	뉴욕필 공연	○중통, 중앙TV(2/23) ○조선신보(2/26), 전세계생중계
02월 27일	뉴욕필 공연 평가	○조선신보, 중통, 평방(2/27)
	주북 독일대사, 양국 수교 7주년 즈음 연회 개최	○중방(2/28)
02월 28일	뉴욕필 단원과 미·북협연	○조선신보(2/28, 2/29)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북·독 외교관계설정 7돌 기념 사진전시회 개최	○중방(3/2)
02월 29일		
03월 01일	김정일-주북 중국대사 류사오밍 초청 중국대사관 방문	○중통(3/1)
03월 02일	조평통 대변인, 한미합동군사연습 관련 '자위적 조치' 담화	○중통(3/2)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